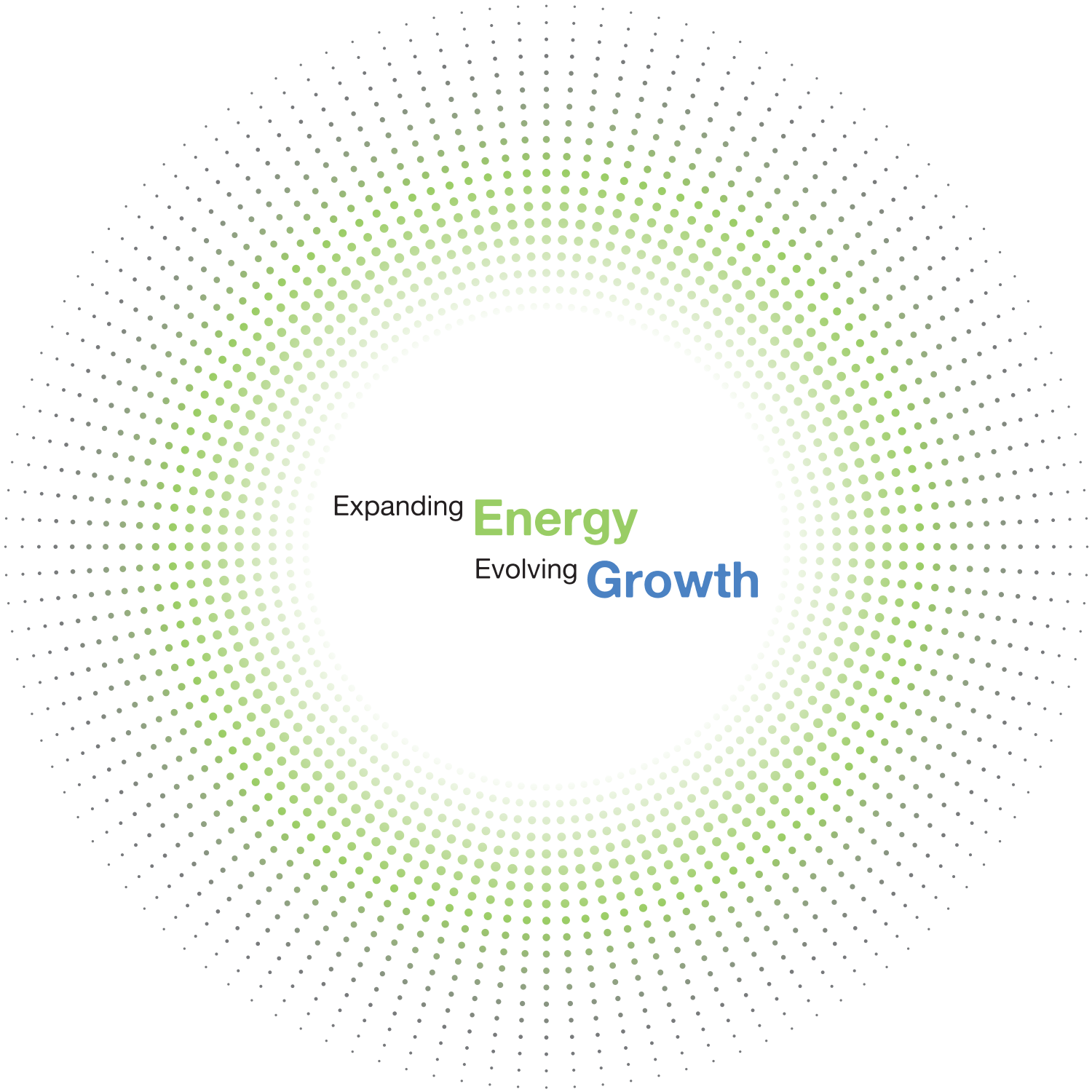
2012
Hyundai Oilbank
Annual Report

Phase II
Refining the Future



Hyundai Oilbank

HYUNDAI OILBANK _
ANNUAL REPORT 2012

Contents

002 주요 재무성과
003 At a Glance
004 News & Issues
012 경영이념
013 경영전략
014 CEO 인사말
016 기업지배구조
018 임원진
020 리스크관리
022 윤리경영
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Business Overview

026 석유사업
028 주요 제품
030 주요 생산시설
034 고도화사업
036 BTX 증설사업
038 신사업과 해외 영업망 강화
040 품질 정책
042 마케팅 정책

Sustainable Management

046 환경경영
048 사회공헌

Financial Statements

052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061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062 연결재무제표
067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8 전사 조직도
119 주요 연혁
120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현황
121 Global Network

EXPANDING ENERGY EVOLVING GROWTH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11월 제2 BTX 증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기계적 준공을 통해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의 본격 상업가동으로 집단 에너지사업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더불어 윤활기유 합작공장 착공과 2012년 2월 국내 최초 유류저장시설인 오일터미널 합작법인 설립 등 다양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고객편익에 기여하며 성장해온 현대오일뱅크는 지속적인 도전과 혁신으로 사업구조를 더욱 다각화함으로써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최고의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요 재무성과

2012년 현대오일뱅크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에서도 신사업 발굴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투자와 수익구조의 변화를 통해 더욱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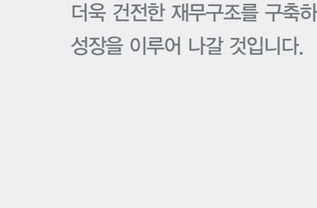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2010	2011	2012
요약 손익계산서			
매출액	13,295,927	19,016,892	**21,700,425**
영업이익	235,733	594,955	**307,2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22,915	450,052	**222,704**
당기순이익	254,138	366,342	**171,387**
요약 재무상태표			
자산총계	7,172,288	8,498,497	**8,444,503**
부채총계	4,892,488	5,907,022	**5,682,933**
자본총계	2,279,800	2,591,475	**2,761,570**
안정성 지표			
유동비율	97.2%	99.2%	**116.3%**
부채비율	214.6%	227.9%	**205.8%**
차입금의존도	37.7%	34.1%	**35.7%**
영업이익대비 이자보상배율	6.5	7.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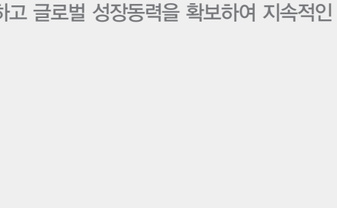
* K-IFRS 기준

매출액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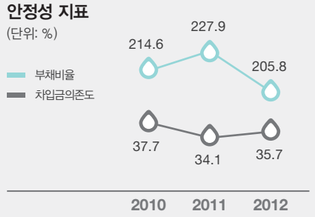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자산총계
(단위: 백만 원)



안정성 지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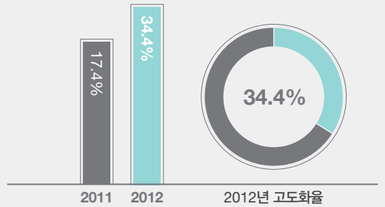


주주구성
(2012년 12월 말 기준, 단위: %)



At a Gl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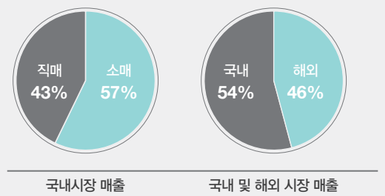
#2 고도화 시설 안정적 가동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6월 #2 고도화 시설을 성공적으로 완공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7만 2,000 배럴 규모의 제1 고도화 시설과 함께 6만 2,000 배럴의 제2 고도화 시설을 보유함으로써 전체 일일 원유 처리량 39만 배럴 중 13만 4,000 배럴의 고도화가 가능해져 34.4%의 고도화율을 보유함으로써 업계 최고의 고효율 고부가가치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이 같은 고도화율을 바탕으로 원유 정제 후 약 40~50%를 차지하는 중질유분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하여 정제마진 개선 및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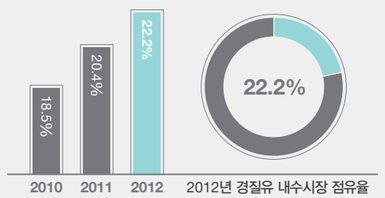
국내 및 해외 시장 매출



현대오일뱅크는 상압증류공정 및 고도화공정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을 주유소, 일반기업체, 정부기관 등의 내수시장과 일본, 중국 등 해외시장에 판매합니다.

2012년 내수시장과 해외시장 판매비율은 54 대 46 정도로 내수시장의 지속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및 상해 현지법인 등 해외 판매망을 활용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신규 시장 개척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대내외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현장 중심의 영업활동 지속, 중부권역의 알뜰주유소 물량 공급 및 전략지역 중심의 주유소 개발 등의 영업 경쟁력 강화, 고객로열티 제고 프로그램 활동 및 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 강화 등의 마케팅 활성화를 기반으로 영업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활동으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에서 22.2%를 달성하였습니다.

NEWS & ISSUES

01 제2 BTX 준공 및 상업가동

서울경제

현대오일뱅크, BTX 생산능력 3배로

(벤젠·톨루엔·자일렌)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11월 14일 제2 BTX 공장을 성공적으로 준공했습니다. 대산공장 인근 약 8만 5,000㎡ 규모에 공사 인원만 32만여 명을 투입한 이번 프로젝트는 공사 기간을 5개월이나 앞당기며 약 8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일본 코스모석유와 합작으로 건설한 제2 BTX는 2013년 2월 1일 상업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 8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과 14만 톤의 벤젠 등 총 100만 톤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생산 물량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하여 연간 1조 원 가량의 수출 증대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산 100만톤 규모 충남 제2공장 완공

현대오일뱅크가 대규모 증설을 통해 석유화학제품의 기초원료인 벤젠·톨루엔·자일렌(BTX) 생산능력을 세배로 확장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대산공장의 85만5,000㎡ 부지에 제2BTX 프로젝트를 완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일본 코스모석유와 합작으로 사업비 6,000억원을 들여 만든 신규 BTX 설비는 연산 8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과 14만톤 규모의 벤젠 등 총 100만톤 규모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BTX설비는 혼합자일렌을 재료로 합성섬유나 각종 플라스틱, 휘발유 첨가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이번 증설로 현대오일뱅크의 석유화학 부문 생산능력은 기존 연산 50만톤에서 150만톤까지 대폭 확대됐다. 특히 완공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5개월이



권오갑(앞줄 오른쪽 두번째) 현대오일뱅크 사장이 14일 충남 대산공장에 완공된 연산 100만톤 규모의 벤젠·톨루엔·자일렌(BTX) 설비를 직접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오일뱅크

02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 준공

東亞日報

현대오일뱅크, 최첨단 열공급설비 준공

부산물 이용 年 500억 절감

현대오일뱅크가 석유 정제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 연간 500억 원의 비용을 절감하게 됐다. 이 회사는 "14일 충남 대산공장에 총 사업비 1000억 원을 투입한 최첨단 열공급설비(FBC)의 준공식을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FBC는 석유정제과정에 필요한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다. 회사 측은 "기존에는 중질유(벙커C유)를 연료로 썼지만 이번에 준공된 설비는 석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인 석유코

학공단에 열과 전기를 판매할 계획이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현재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기존의 석유정제사업 외에 벤젠·톨루엔·파라자일렌(BTX)을 생산하는 석유화학공장의 증설, 윤활기유 사업, 울산 신항 유류저장사업 등에도 진출했다"며 "FBC 추가 건설은 장기적으로 다양한 에너지사업 분야로도 진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단순한 석유정제 사업자에서 향후 현대중공업과 함께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의미다.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9월 14일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열공급 설비는 국내 최초로 석유코크스를 연료로 스팀을 생산하는 첨단 설비로, 여기서 만들어진 스팀은 정유나 석유화학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각 공정의 열원으로도 이용됩니다. 이번 열공급 설비 준공으로 시간당 220톤의 스팀을 생산하여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이 예상되며, 2014년까지 추가 설비를 통해 인근 대산 석유화학 공단에도 스팀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03 현대쉘베이스오일 설립

한국경제

오일뱅크, 셸과 손잡고 윤활유 사업 진출

(이종 메이저)

내달 합작법인 설립
2014년부터 상업가동

영업이익률 높아 '매력'
정유사 앞다퉈 투자 확대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사장(왼쪽 두 번째)이 7일 삼가포르 싱그림아트빌에서 열린 윤활기유 합작사업 조인식에서 마크 게인스보로 쉘 이스턴 대표(오른쪽 두 번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세계적인 정유 회사인 쉘(Shell)과 합작으로 윤활기유 사업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2012년 2월 7일 권오갑 사장과 쉘이스턴의 마크 게인스보로우 대표는 하루 2만 배럴 규모의 윤활기유 합작 계약에 서명하고, 2014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대산공장에 3만 3,000㎡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4월 16일에는 양사의 합작 법인인 현대쉘베이스오일이 공식 출범했으며, 2013년 1월 22일 충남 대산공장에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공장 건설을 통해 생산된 윤활기유는 쉘의 유통망을 통해 중국 등 아시아지역에 수출되며 연간 1조 원 이상의 매출과 8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4 현대오일터미널 투자 유치

한국경제

현대오일뱅크 330억 유치 · 울산 신항 유류저장소 설치

현대오일뱅크는 울산 신항 유류저장 사업에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인 사모투자펀드로부터 33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냈다고 12일 발표했다.

스틱인베스트먼트는 누적 운용자산 2조3000억원 규모에 국내와 중국 대만 베트남 홍콩 미국 등에 해외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 전문회사다.

현대오일터미널은 2013년 완공 목표로 울산 신항 내 29만1 규모의 유류저장 시설을 짓고 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2012년 6월 11일 울산 신항에 건설 중인 유류저장사업에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운용 중인 사모투자펀드를 통해 33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습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2012년 2월 현대오일뱅크의 유류저장사업을 분리해 출범한 자회사로, 울산 신항 내 약 29만 톤 규모의 유류저장시설 공사를 2013년 완공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총 공사비 약 900억 원 중 36%인 330억 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5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설립

東亞日報

현대오일뱅크, 월급 1% 나눔재단 현판식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이 8일 현판식을 갖고 출범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의 급여 1%를 출연금으로 설립한 공익 재단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작년 9월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노사가 뜻을 모아 급여 1% 나눔 약정식을 가졌고, 투명한 운용을 위해 재단 설립을 준비해왔다. 임직원의 96%가 매달 급여의 1%를 떼어내 소외된 이웃을 돕는다.

초대 이사장은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지낸 김창기 조선뉴스프레스 사장이 선임됐다. 김 이사장은 "투



현대오일뱅크 제공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 2012년 2월 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2012년 9월 노사가 뜻을 모아 '급여 1% 나눔 약정식'을 가진 현대오일뱅크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 나눔재단에는 매월 임직원의 96%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급여 1%를 기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주유소 현장 근무 수당, 일선 주유소 사장들의 성금 등 사회 곳곳에서 따스한 동참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1% 나눔재단은 설립과 함께 8대 사업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06 2012년 임금위임 및 단체협상 타결, 2013년 임금동결

東亞日報

현대오일뱅크 노사, 전직원 임금동결 선언

현대오일뱅크 노사가 올해 전 임직원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현대셀프주유소에서 권오갑 사장과 김태경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 임금동결 선언식'을 열었다. 이 회사가 임금동결을 결정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과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다.



현대오일뱅크 권오갑 사장(오른쪽)과 김태경 노조위원장이 1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현대셀프주유소에서 임금동결을 선언한 뒤 악수하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제공

회사 측은 이번 결정에 대해 노조가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위축 등 최근의 경영환경을 위기로 인식하고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해 스스로 결단을 내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회사의 경쟁력과 조합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며 "이런 취지를 살려 전체 대의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올해는 윤활기유 및 오일터미널 사업 추진, 제2 BTX(벤젠·톨루엔·자일렌) 공장 가동 등 대형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는 해"라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노조의 결정은 단순한 임금동결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권 사장과 김 위원장은 선언식 후 함께 주유소 현장근무를 하며 노사 화합의 의지를 다졌다.

현대오일뱅크 노동조합은 2012년 5월 15일 회사에 임금을 위임하고 단체협상을 일괄 타결하였습니다. 이번 성과는 2012년 1월 노조가 임금위임 및 무파업을 선언하고, 임금 협상을 회사에 일괄 위임한 후 두 번째로 이루어진 것으로 협력적 노사 관계의 큰 결실입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 노사는 2013년 2월 18일 '2013 임금동결 선언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임금동결 결정은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경기침체를 겪은 1998년, 2009년에 이어 세 번째로, 노조가 먼저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PANDING AND IMPROVING THE FACILITIES

제2 BTX 프로젝트의 완공과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 Fluidized Bed Combustion) 준공을 통해 설비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석유화학부문의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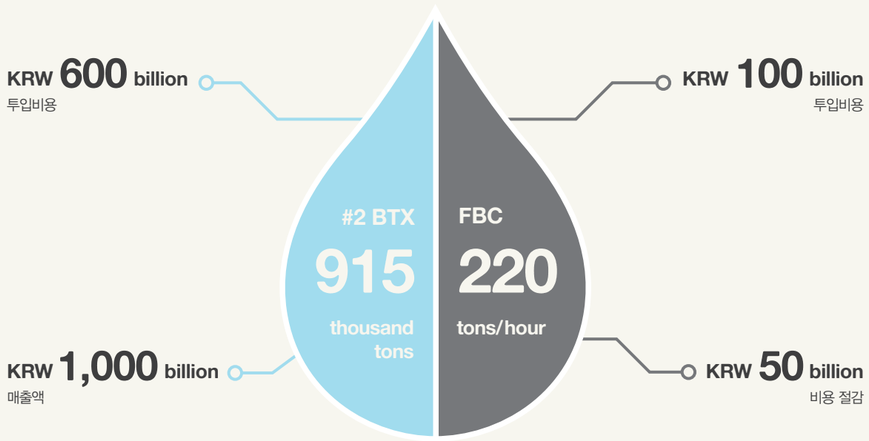
2012년 완공 프로젝트

#2 BTX Project

대산공장 제2 BTX 증설 프로젝트 완공

FBC Project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 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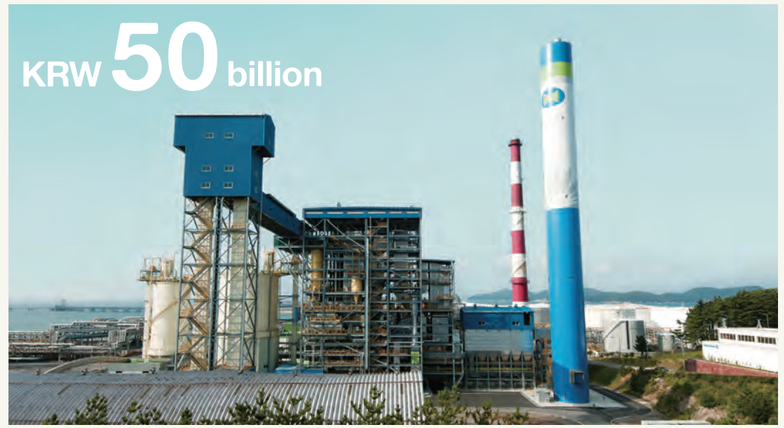
#2 BTX 공장 완공

일본 코스모석유와 합작으로 총 사업비 6,000억 원을 투입한 신규 BTX 설비는 기존 연 50만 톤에서 약 140만 톤까지 석유화학부문 생산능력을 확대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대산 본사 인근 8만 5,0000여 m^2(약 2만 6,000평) 부지에 약 32만 명의 공사인원을 투입했으며, 공사기간도 계약공기 대비 5개월이나 앞당겨 약 800억 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거뒀습니다. 신규 공장이 본격적으로 상업가동되는 2013년 2월부터 늘어나는 BTX 생산물량 대부분을 해외로 수출함으로써 연간 1조 원 가량의 수출 증대와 무역수지 개선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첨단 열공급 설비 (FBC) 완공

2012년 9월 현대오일뱅크는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의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설비 준공으로 시간당 220톤의 스팀을 생산,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비용 절감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FBC 설비를 추가 증설하여, 인근 대산 석유화학공단에 안정적으로 스팀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ACCELERATING
FOR NEW BUSINESSES

합작법인 현대쉘베이스오일(주)과 신규 법인 현대오일터미널 설립을 토대로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러한 사업 다각화로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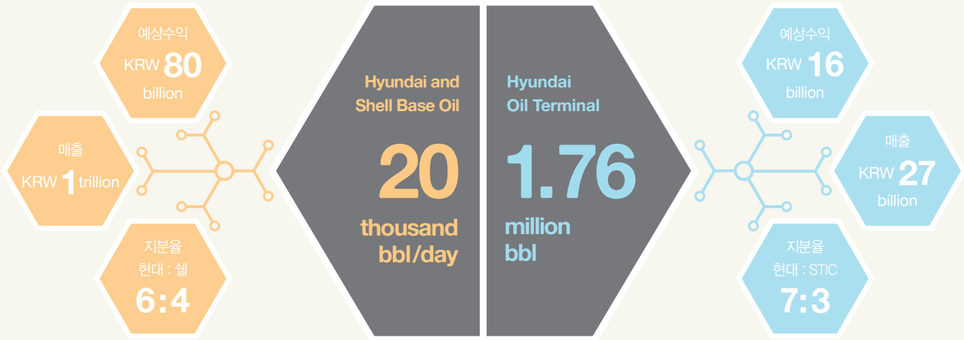
신사업의 확장

Hyundai and Shell Base Oil

윤활기유 공장 완공 예정(2014년)

Hyundai Oil Terminal

유류저장 시설 완공 예정(2013년)



현대쉘베이스오일

현대쉘베이스오일은 2013년 1월 22일 충남 대산공장에서 양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쉘베이스오일 윤활기유 공장'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충남 대산공장 내 3만 3,000㎡ 부지에 들어설 윤활기유 합작공장은 하루 2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14년 하반기 본격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현대쉘베이스오일은 향후 윤활기유 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을 쉘의 유통망을 통해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 수출하여 연간 1조 원 내외의 매출과 8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터미널

현대오일터미널은 2012년 6월 스틱인베스트먼트와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330억 원을 조달하였습니다. 2011년 울산 신항에 총 공사비 약 900억 원을 투입하여 총 176만 bbl 규모의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유류저장시설을 건설 중에 있으며 201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터미널은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해외에 상업용 유류저장 사업을 확대하여 동아시아 최대의 물류회사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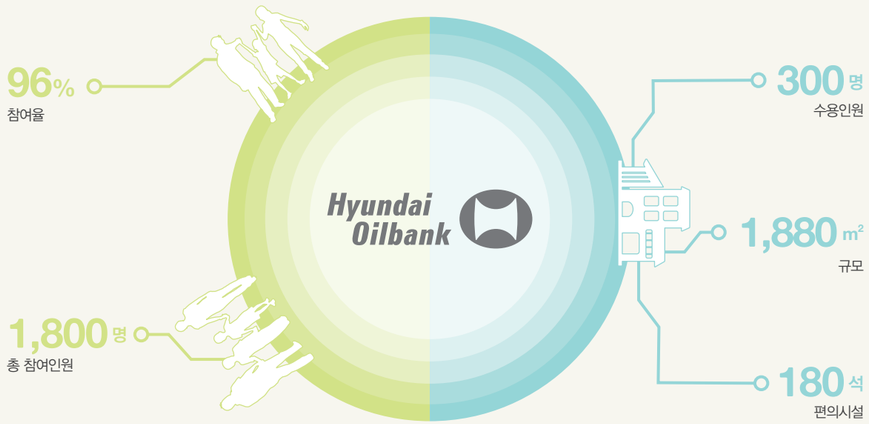
RESPONSIBILITIES
AS A CORPORATE CITIZEN

현대오일뱅크는 1% 나눔재단의 적극적인 활동과 한마음관 준공을 통해 기업시민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생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나눔의 확산

1% 나눔재단
96% 임직원의 급여 1% 기부

한마음관 준공
협력업체 후생동 '한마음관' 준공



1% 나눔재단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이 2012년 2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2011년 9월 노사가 뜻을 모아 '급여 1% 나눔약정식'을 가진 현대오일뱅크는 투명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1% 나눔재단에는 매월 임직원의 96%가 소외된 이웃을 위해 급여 1%를 기부하고 있으며, 임직원들의 주유소 현장 근무 수당, 일선 주유소 사장들의 성금 등 사회 곳곳에서 따스한 동참의 손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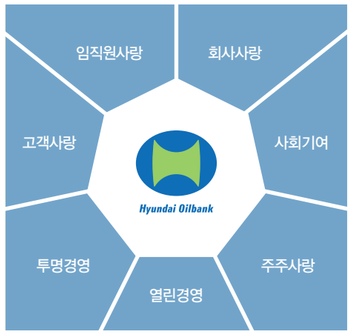
한마음관 준공

2012년 4월 18일 협력업체 전용 시설인 한마음관을 준공했습니다. 대산공장 내 입주한 협력업체를 위해 1,880㎡(약 570평)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한 한마음관은 약 3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규모로 전용 식당과 샤워 시설, 운동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180명이 동시에 식사할 수 있는 '休 & Enjoy'는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영이념

현대오일뱅크는 기업 본래의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경영에 대한 기본철학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영이념은 일곱 가지 세부 방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객	–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 적극적 지원 활동
임직원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
주주	– 투명경영 – 주주가치 극대화
협력회사	– 상생문화 구축 – 공정거래 실천
사회	–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
환경	– 친환경경영 –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노력

이해관계자의 가치 증진

고객과 주주, 회사와 임직원, 지역사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현대오일뱅크는 각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인 회사의 명예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임직원 스스로 최고의 가치를 가진 회사의 소중한 자산임을 인식하고 상호 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창의성을 개발하여 기업의 내부가치를 높여 나갑니다. 고객 만족이 사업의 근간임을 인식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고객가치를 창조해 나가며,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경영으로 지속적인 가치창조를 추구합니다. 아울러, 현대오일뱅크가 국가 기간산업의 중추임을 인식하고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역사회 공동체와 함께 상생발전의 길을 모색합니다.

신뢰받는 기업을 위한 경영활동

이해관계자들에게 최대의 만족을 제공하려는 노력과 병행하여 현대오일뱅크는 투명경영, 열린경영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사회적 제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에 앞장서며, 회사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임직원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열린경영을 실천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비전을 달성하여 고객, 임직원, 협력회사, 주주 그리고 지역사회의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기업 본연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는 믿을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전략

2012년은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의 새 활로를 모색하는 한 해였다면, 2013년은 신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글로벌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중한 1년이 될 것입니다.

4대 실행과제

▶ 신규 사업 조기 정착

· 추진 중인 신사업의 조속한 가시화
· 지속적인 사업 발굴
· 신사업 연구 인력 확보

▶ 안정적인 수익 창출

· 내수시장 점유율 확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위기 관리를 통한 내실 경영

▶ 안전한 공장 운영 및 생산성 극대화

· 공장 정기보수의 성공적 수행
· 공정 최적화를 통한 생산량 극대화
· 에너지 효율 증대 및 비상가동정지 최소화

▶ 역동적인 조직문화

· 글로벌 인재 육성
· 지속적인 우수 인력 채용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

현대오일뱅크는 2013년 경영목표를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로 정했습니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신사업을 조기에 정착시켜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해외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글로벌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전 임직원은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회사의 수익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여, 미래의 더 큰 가능성을 향해 비상하는 종합 에너지기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2년 추진 신사업

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2012년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와 쉘이 각각 6대4의 비율로 출자해 만든 '현대쉘베이스오일'은 충남 대산 공장 부지에 하루 2만 배럴 처리 규모의 윤활기유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상업 생산할 예정입니다. 울산 신항에 총 사업비 936억 원을 투입해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유류저장시설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 최초의 상업용 유류탱크 터미널 사업으로 28만 킬로리터(KL) 규모의 석유제품 저장능력을 갖추고, 국내외 화주의 물동량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해외 지사들의 행동반경을 넓히고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기 위해 2012년 10월 지사에서 법인으로 탈바꿈한 상해법인은 독자적인 트레이딩 사업을 시작하고,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꾸준히 석유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2012년 7월 베트남에 신규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CEO 인사말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21조 7,004억 원의 매출과 3,072억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제 중심의 사업구조 혁신, 신사업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겠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주주 및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뉴얼 리포트를 통해 현대오일뱅크가 펼치는 지속가능 경영 활동과 성과를 말씀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64년 국내 최초의 민간 정유회사로 출범한 이래 반세기 가까이 국가 경제와 산업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한다는 사명감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창사 초기 일일 1만 배럴의 정제시설은 39만 배럴로 증가했으며, 수십 개에 불과했던 주유소는 충전소 포함 모두 2,300여 개로 늘어나는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내외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21조 7,004억 원의 매출과 3,07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8%대에 머물던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을 22%대까지 끌어 올렸고, 정제분야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신사업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 코스모석유와의 합작을 통해 연 45만 톤 규모의 BTX 생산시설을 총 140만 톤까지 확장하는 제2 BTX 공장 증설도 공사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합작사인 코스모석유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료의 안정적인 조달은 물론 중국, 인도 등 아시아 역내권의 석유화학 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처할 예정입니다.

세계적 글로벌 정유회사인 쉘(Shell)과의 윤활기유 합작사업도 2013년 1월 22일 충남 대산공장에서 첫 삽을 뜨며 순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는 2014년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는 윤활기유 공장은 일일 처리량 2만 배럴 규모이며, 생산제품 대부분은 쉘의 윤활유 생산공장의 원료로 공급하고, 쉘의 유통망을 통해 전세계로 수출할 예정입니다.

대산공단 집단에너지 사업의 첫 단추인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의 성공적인 상업가동에 이어 울산 신항의 유류저장사업도 올해 하반기 상업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총 28만 KL 규모의 저유소가 들어설 예정인 이 사업은 연 270만 톤 규모의 국내외 석유제품 물동량을 유치해 동남권 최대의 석유제품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폴리프로필렌, 제철화학 사업 등 미래 성장 엔진을 강화하고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밑거름이 될 신규 사업들을 적극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우리 사회가 건전해야 기업도 존재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기업 처음으로 임직원들이 매월 본인 급여의 1%를 직접 기부하며 출범한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은 1% 사각지대 희망발굴 프로젝트, 어르신 진지방 사업, 희망에너지 장학사업 등 본격적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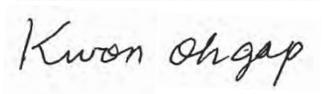
공장이 위치한 충남 대산 인근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쌀을 매년 약 10억 원 가량 수매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해 오고 있으며, 지역 어촌을 살리기 위해 삼길포 일대에 우럭 치어를 10년 가까이 방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고도화 증설 이후 늘어난 제품 물량을 수출하기 위해 해외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서며 지난 해에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80억 불 수출탑을 수상하였습니다. 공장의 안전가동과 효율성을 인정 받아 제1회 대한민국 지식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으며, 한국표준협회에서 선정하는 서비스품질지수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모두는 투명하고 정직하게 원칙을 지키고, 자신감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주주 및 고객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그동안의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사장 권 오 갑



기업지배구조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글로벌 기업이 갖추어야 할 필수 요건으로 인식하여 2012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3명의 사외이사를 선임하였으며,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이사회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새롭게 출범한 이사회를 중심으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주 · 임직원 ·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선진 기업지배구조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사회 역할

이사회의 존재 의의는 경영 현안 전반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과 조언, 감시 기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같은 기능을 위해 이사회는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사회 활동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주주와 투자자 등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사회 구성

현대오일뱅크 이사회는 정관과 이사회 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1명, 기타비상무이사 1명과 사외이사 3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맡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재무구조 개선 및 주요 투자사업 결정, 기타 경영사항 등 회사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사항을 자유롭고 심도 있는 토의를 통해 심의 · 의결합니다.

이사회 구성

사내이사	**권오갑**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2010~현재) 현대중공업스포츠 대표이사 사장(2009~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 총재(2013~현재)
기타비상무이사	**김정래** 현대종합상사 대표이사(2012~현재) 현대중공업 부사장(2010~2011)
사외이사	**김갑순** 딜로이트코리아 부회장(2009~현재) 서울지방국세청 청장(2008)
	김갑유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변호사(1996~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2002~현재) 미국중재협회(AAA) 상임위원(2009~현재)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2007~현재) 한국아동복지학회 회장(2007~현재)

이사회 산하 위원회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대오일뱅크는 이사회 내에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감사위원회, 내부거래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회 산하 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회	구성	주요 기능 및 역할
감사위원회	김갑순 김갑유 이봉주	• 회사의 회계와 업무 감사 • 영업에 관한 보고 요구 및 회사의 재산상태 조사 •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 및 이사회 위임 사항 처리 • 감사인의 선임/변경/해임권
내부거래위원회	김갑순 김갑유 이봉주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승인 및 이사회 보고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권오갑 김갑순 이봉주	• 주주총회 시 사외이사 후보 추천 권한

2012년 이사회 활동

현대오일뱅크 이사회는 지난해 총 7회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28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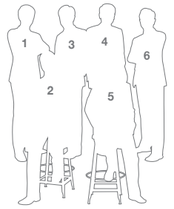
2012년 이사회의 주요 의결사항

주총, 이사회, 지배구조 관련	• 제48기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목적사항 승인 • 이사회 규정 개정 승인 •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사항 개정 승인 • 감사위원회 규정 신설 승인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선임 및 규정 신설 •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선임 및 규정 신설
투자 관련	• 윤활기유 사업진출을 위한 합작계약 체결 승인 • 유류저장사업 자회사 설립투자 승인 • 현대쉘베이스오일(주) 증자 참여 승인
회계 및 재무관리 관련	• 제48기(2011년) 재무제표 승인 • 제48기(2011년) 영업보고서 승인 • 계열금융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한도 승인(4차례) • 계열사간 내부거래 한도 승인(4차례) 계열사간 내부거래 승인 • 제109회 회사채 발행 승인 • 제110회 회사채 발행 승인 • 제111회 회사채 발행 승인 • 현대코스모(주)를 위한 지급보증 승인 • 장기용선계약 이행보증 승인
기타 주요 경영사항	• (주)현대중공업스포츠와 스폰서 계약 승인 • 2013년 경영목표 승인 • 해외지사(베트남) 설립 승인

임원진

적극적인 공격경영 체제로의 조직정비 이후, 더욱 강화된 책임과 권한 부여로 신사업 동력을 발굴하고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장지학 글로벌사업본부장
2. 조영철 경영지원본부장
3. 유재범 생산본부장
4. 김병섭 영업본부장
5. 문종박 기획조정실장 겸 글로벌 사업본부총괄
6. 강달호 중앙기술연구원장

문종박
기획조정실장 겸 글로벌 사업본부총괄

우리 회사는 2012년 양호한 영업이익을 달성함은 물론 현대쉘베이스오일 설립, 제2 BTX 준공, 베트남지사 설립 등 종합 에너지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2013년 역시 지속적인 신사업 추진을 통해 정유업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다각화할 것이며, 해외 신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현대코스모는 제1 BTX에 이어 제2 BTX까지 상업가동함에 따라 회사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김병섭
영업본부장

영업본부는 2012년 영업 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를 기반으로 판매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목표 100% 초과 달성은 물론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도 22% 이상 달성했습니다. 2013년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유지하면서 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 지역과 도심권 중심의 직영 주유소를 강화할 예정이며, 윤활유 판매사업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재범
생산본부장

2013년에는 제2 공장과 제2 고도화공장을 아우르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정기보수를 시행하므로 안정가동과 환경안전보건에 주력해야 합니다. 생산본부는 안전 및 안정가동에 대한 실천교육을 반복하고, 협력업체의 안전의식과 시공역량을 강화해 나가며, 설비신뢰도 향상을 이끌어 사고율 제로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안정가동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구성원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강달호
중앙기술연구원장

2012년 중앙기술연구원은 정부의 연구지원금 114억 원을 유치했으며 국내외에서 3건의 자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3년에는 회사의 신성장 동력 발굴과 기존 사업 강화를 위해 신기술 연구와 기존 기술 개발 간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고부가 프리미엄급 제품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탈정유 시대'에 맞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 확보에 집중하겠습니다.

조영철
경영지원본부장

2012년 전사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과 회사의 성장을 위해 재무 안정성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2013년 경영지원본부는 '글로벌 성장동력 확보'라는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고의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업 다각화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기업공개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며,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외환 및 유가 리스크 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장지학
글로벌사업본부장

2013년에는 고수익 신 시장 개척 및 직거래를 통한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겠습니다. 호주, 뉴질랜드는 물론 유럽 및 전세계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것입니다. 또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로 안정적으로 원유를 도입할 것이며 경제성이 높은 현물원유 도입 확대 등 신규 원유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한편 원유 구매, 제품 생산, 영업의 유기적 통합을 통한 전사 운영 최적화 기능을 강화해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국내외 정유시장의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리스크 예측 및 분석을 통한 사전 · 사후 관리로 경영의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 조직

현대오일뱅크는 석유가격 변동에 따른 모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외환 리스크, 유가 리스크, 정제마진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가변동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가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는 대부분이 선적월 가격 기준으로 계약되고, 이로 인해 운송 기간(1개월) 동안 발생하는 가격 변동이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유가변동 리스크 관리 체계를 수립 ·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리스크 발생 시 필요한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관 업무 임원 및 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노출 물량은 유가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 회피와 더불어 손익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가에 연동되어 변동하는 제품 가격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선도거래를 통해 제품 별 정제 마진 헤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준 도달 시 헤지를 통해 마진을 고정하여 유가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를 시행 중입니다.



외환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해외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정제된 석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종 특성상,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기 및 임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기본적인 환위험관리전략을 수립 · 점검하고 있으며, 외환 리스크 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 리스크에 대한 헤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당사의 위험 노출 정도(Exposure)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는 투기적 거래를 배제한 실물 거래와 연계된 헤지를 통해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원유 도입 다변화 및 기타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이란 및 중동산 원유 도입 리스크와 같은 지정학적 위험을 근본적으로 회피하기 위해 원유 도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고도화 설비 증설은 중동 원유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원가 절감을 위해서도 중동 의존도 완화와 유종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공장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신규 도입 원유를 확대하여, 리스크를 회피함과 동시에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제품 판매에 있어서는 전월 가격 기준 제품 판매 및 입찰 물량 헤지를 통해 유가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고정가 입찰, 비축유/시설 임차 거래 시 반드시 헤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현대오일뱅크는 '창조적 예지, 적극 의지, 강인한 추진력'의 현대정신을 바탕으로 투명한 경영과 지속적 혁신을 추구하며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도 '신뢰받는 기업, 존경받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것입니다.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 윤리경영을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의 일원이 되어 더욱 투명한 경영과 지속적인 혁신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고객과 협력회사에게는 '거래하고 싶은 회사',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회사', 임직원에게는 '근무하고 싶은 회사', 국가와 사회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회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

현대오일뱅크는 윤리헌장, 윤리규범, 직무윤리 실천지침의 윤리규정에 근거한 교육 · 홍보 및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윤리경영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직무에는 특정직무 윤리규범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운영제도

클린노티스	현대오일뱅크 임직원은 2013년부터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선물은 물론이고 경조금, 식사 등을 일체 수수하지 않기로 하는 등 더욱 강화된 윤리경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직원이 협력업체로부터 불가피하게 금품이나 선물을 받은 경우 즉각 반환/반송하고 반환/반송이 불가능할 경우 지정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 경조금, 선물 수수 등 공정성과 윤리성에 위배되거나 저해되는 요건이 있는 경우 클린노티스를 통해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임직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 신고	회사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내지 협력회사 임직원이 거래상대방과 이해관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회사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의 상충을 피하도록 조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보자 보호 및 포상	정당한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를 금지하고 비밀을 보장하여 불이익,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 및 비리행위 제보자를 제보자 포상처리 기준에 의거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및 사이버신고	현대오일뱅크는 윤리경영 홈페이지(http://ethics.oilbank.co.kr)를 별도로 운영하여 윤리경영제도와 추진경과에 대하여 소개하고, 윤리헌장을 비롯한 각종 윤리 규정을 살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본 윤리규범'과 '윤리경영 Q&A' 등을 통하여 윤리규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으며 위반행위, 부정 또는 비리행위, 불공정 거래 등 잘못된 관행이나 정책에 대해 제보할 수 있도록 '사이버 신고하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임직원의 윤리경영에 대한 이해와 실천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신입사원과 승진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경영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은 매월 윤리경영 동영상 시청과 현대중공업그룹 맞춤형 사이버 교육과정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현대오일뱅크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 준수를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지난 2003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여 기업활동 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시장경쟁 체제를 위한 노력

회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해당지역의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여 업무를 수행하며,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국내외 모든 지역에서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합니다. 현대오일뱅크의 CP시스템과 준법점검은 사회적 가치 증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시 수반되는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할부거래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등 경쟁 촉진과 공정거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제반 법령

핵심요소 실천사항

CEO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 자율준수의지 천명(전자문서, 홈페이지) • 입찰위원회 운영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운영	• 기획조정실장 임명 • CP주관부서: 정책지원팀 • CP운영을 위한 교육예산 배정 · 실무책임
자율준수편람 작성 및 배포	• 2003년 12월 편람 발간 • CP사이트를 통한 업데이트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내부교육(법령 제/개정 교육, 자율준수담당자 교육, 자율준수점검 병행교육, 신입사원 · 경력사원 · 팀장 · 주유소장 교육 및 필요 시 선별교육 등) • 외부위탁교육(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관) • 사이버연수원(온라인 교육)
내부감독체계 구축	• 공정거래 업무 규정 및 공정거래 자율준수 전사 업무절차서 • 내부고발시스템(CP상담실, 공정거래 신문고 등) 채널 확대
법규위반자 제재 시스템 구축	• 인사규정(포상, 징계규정)에 따라 제재 •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최고 '해고'까지)
문서관리체계 구축	• 포털, 문서함, CP News 등 온/오프라인 문서 관리 • CP사이트를 통한 업데이트

BUSINESS OVERVIEW

2012년 현대오일뱅크는 21조 7,004억 원의 매출과 3,072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며, 기존 18%대의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을 22%대까지 끌어 올렸습니다. 정제분야에 집중된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신사업과 신성장동력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매출 (단위: 조 원)

21.7

석유사업

2012년 하루 생산능력 39만 배럴, 주유소 2,355개 운영을 통해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을 22.2%로 확대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더욱 강화된 고도화 경쟁력으로 최고의 석유정제 및 마케팅 회사로 도약해 나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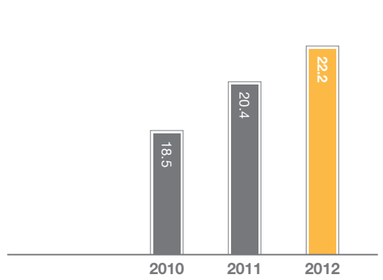
공급선 다변화 및 고도화 정제능력 대폭 개선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원유 장기계약을 통해 풍부한 산유량과 낮은 지정학적 위험도로 아시아 지역 정유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유종인 쿠웨이트, 카타르 산 원유를 기존 대비 세 배인 최대 190mb/d까지 확보해 고도화 공정에 적합한 고유황 중질 원유의 안정적 수급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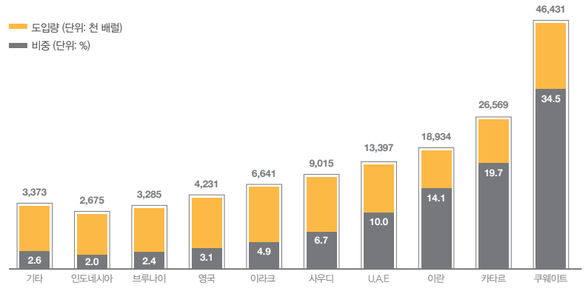
이와 함께 중동 산유국 편중 위험을 줄이기 위해 국내 정유사 중 유일하게 아시아지역 고유황 원유인 태국산 부알루앙 원유를 장기계약 체결하였으며, 북해산 원유를 첫 도입하는 등 원유 공급선의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2012년 12월 말 현재, 하루 39만 배럴의 원유 정제능력 및 13만 배럴의 고부가가치 제품인 경질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도화 정제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력 향상으로 잦은 국제 원유가 변동에 대응하고 재무안정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2년 경질유 M/S (단위: %)



2012년 국가별 원유 도입량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 지속적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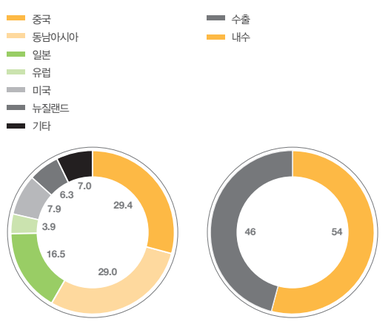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한 해 동안 대 · 내외 경기불황 및 정부의 석유유통 개선정책 시행 등의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영업경쟁력 강화와 마케팅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판매성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치열한 경쟁을 뚫고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 22% 이상을 달성함으로써 고도화 증설을 통한 경질유 내수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공략을 위한 해외 네트워크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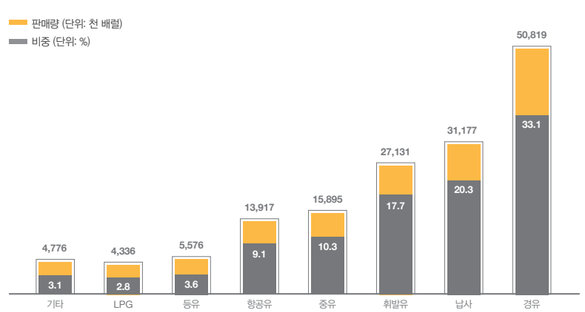
2012년 현대오일뱅크는 석유제품 판매량 중 약 40%에 해당하는 6,000만 배럴을 수출하였으며,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입니다. 특히 적극적인 신규 시장 진출 노력을 통해 호주/뉴질랜드, 몽골 등 신규 시장을 개척하였으며, 중국 상해와 중동 두바이 지사를 활용하여 프로필렌, 윤활유 사업 등 신사업 확충의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품 트레이딩팀을 경질 제품팀과 중질 제품팀으로 세분화하여 제품 수출 경쟁력을 확충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규 시장 진출 및 해외 직거래 확대를 위한 기반을 보다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신규 시장 개척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세계 9개국에 5법인, 4지사를 설치하고, 해외 주재원 30명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2012년 국가별 수출 비중 (단위: %)



2012년 제품별 판매량



주요 제품

현대오일뱅크는 취사용 연료에서 자동차, 선박, 항공기 연료, 산업용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의 근간이자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세계 최고 품질의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원재료 생산을 통해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고급휘발유(Premium Gasoline)

현대오일뱅크의 최고급 제품을 대표하는 옥탄가 98 이상의 고옥탄 휘발유로서, 최신 엔진 성능 향상제를 첨가하여 장시간 가혹한 운전에도 출력 및 연비 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유해배기가스를 현저히 줄여주는 친환경 고성능 제품입니다.

휘발유(Gasoline)

휘발유는 휘발성이 강한 혼합액체물질로서 스파크 점화식 내연기관의 연료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벤젠(0.7 부피% 이하)과 황분(10㎎/㎏ 이하) 함량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대오일뱅크는 규정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고품질의 휘발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엔진 청정제를 첨가하여 엔진 내에서 연료의 분사성 및 연소성을 향상시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초저황경유(Ultra Low Sulfur Diesel)

기존 경유의 매연과 소음문제를 크게 개선한 국내 최초의 친환경 초저황경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급 경유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 엔진을 깨끗이 해주며, 2006년부터는 모든 경유제품에 바이오디젤을 혼합하여 더욱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등유(Kerosene)

현대오일뱅크가 생산 · 판매하고 있는 실내등유는 친환경마크를 가진 제품으로 자극적인 냄새가 없고 연소 시 연기나 그을음이 거의 없어 실내용 난방연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고도의 정제과정을 거친 우수한 발열량과 연소성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중유(Fuel Oil)

황 함량과 용도 및 점도에 따라 저유황 중유, 선박용 중유, A중유, B중유, C중유로 구분해 공급하고 있으며, 주로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연료로 쓰입니다. 특히 엔진의 크기, 종류 등이 다양한 선박용 중유는 점도에 차등을 두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LPG(Liquefied Petroleum Gas)

프로판(Propane)은 가정 · 상업용 취사, 난방 등에 사용되며, 부탄(Butane)은 자동차 연료를 비롯한 이동용 버너나 난방용 연료, 산업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냄새가 없는 에어로졸용 무황 LPG를 공급하고 있으며, LPG 자동차의 고장 원인이 되는 기화기 찌꺼기를 최소화하는 엔진시험을 적용하는 등 엄격한 품질관리를 거쳐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항공유(Jet Fuel)

항공기용 제트 터빈 연료유는 저압 · 저온의 고공에서도 연료 필터의 막힘이 없고, 엔진 연소성이나 시동성이 양호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군용인 JP-8과 민간용인 Jet A-1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납사(Naphtha)

석유화학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납사는 휘발유의 생산원료이자 용제, 석유화학 및 비료공업의 원료입니다. 끓는점이 100℃ 이상인 중질납사는 개질공정(Reformer)을 통해 BTX(벤젠, 톨루엔, 자일렌) 생산에 사용되어 각각 나일론과 합성고무, 페인트용제, 플라스틱이나 폴리에스터섬유의 원재료가 됩니다.

BTX(Benzene, Toluene, P-Xylene)

무색 내지 엷은 황색의 액체로 인화성이 높으며 특유의 방향(芳香)이 있는 벤젠(Benzene)은 방향족 기초제품 중 가장 중요한 화합물로 나일론, 스티로폼, 보온재 등의 원료로 쓰이며, 혼합 자일렌으로부터 분리 · 생산한 파라자일렌(P-Xylene)은 폴리에스터, 필름, PET 등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프로필렌(Propylene)

아세톤 및 이소프로필알코올, 아크릴로니트릴, 나일론6, 폴리프로필렌, 산화프로필렌, 에피클로로히드린, 폴리이소프렌 등 광범위한 석유화학의 핵심원료로서, 아크릴 제품과 합성고무, 플라스틱, 세제 등의 다양한 석유화학제품 생산의 근간이 됩니다.

알킬레이트(Alkylate)

옥탄가가 높고 대기공해 발생물질인 방향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증기압 및 황 함량이 낮은 친환경 · 고품질의 휘발유 배합기재로 사용됩니다.

주요 생산시설

최첨단 정제시설로 고객 생활의 편리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고부가 · 고품질의 최상급 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정 개선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생산기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첨단 설비 고도화 및 증설



충남 서산에 위치한 대산공장은 현대오일뱅크의 원유정제를 책임지는 핵심기지로서 회사의 가치가 1차적으로 실현되는 곳입니다. 약 280여 만㎡(약 85만 평) 부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설과 개조를 통해 업계 최고의 첨단 생산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제공정의 근간인 원유정제시설, 지상유전으로 불리는 국내 1위 고도화율의 중질유 분해시설 등을 바탕으로 2012년 12월 말 현재 하루 39만 배럴의 원유를 정제하고 이 중 13만 배럴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 2월 1일 제2 BTX 시설을 상업가동하기 시작하여 고품질의 석유제품에 이어 석유화학분야로 제품생산을 다양화하여 명실상부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 생산기지로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상압증류공정(CDU, Crude Distillation Unit)



감압증류공정(VDU, Vacuum Distillation Unit)

(1) 상압증류공정(CDU, Crude Distillation Unit)

상압증류공정은 원유를 끓는점의 차이에 따라 각종 석유제품으로 분리하는 공정입니다. 저장탱크를 떠난 원유는 먼저 열교환기에서 130~139℃로 데워져 탈염기로 들어가 염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보통 원유에는 10~3,000㎎/㎏ 정도의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염분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의 원유를 그대로 증류하면 염이 분해되어 염산과 같은 산을 생성하여 장치를 부식시키고, 가열로나 열교환기, 증류탑 내부 등에 달라붙어 장애를 일으키므로 탈염과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원유는 가열로에서 350℃까지 온도를 높여 탑상부로부터 끓는점이 낮은 LPG, 납사, 등유, 경유, 중유의 순으로 분리되고, 불순물 제거 등을 위한 후속공정으로 이송됩니다.

(2) 감압증류공정(VDU, Vacuum Distillation Un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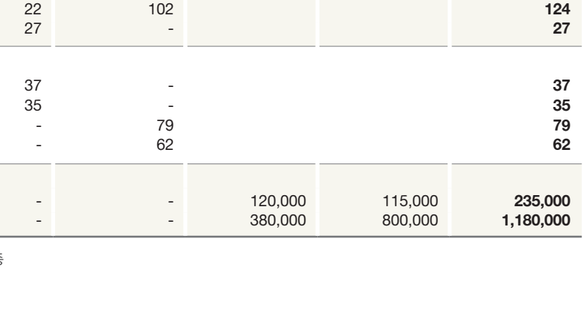
상압보다 낮은 압력에서 이루어지는 증류(감압증류)공정입니다. 원유를 상압증류공정에서 처리하면 경질유분 외 약 50% 정도의 상압잔사유가 나옵니다. 감압증류는 이 잔사유를 진공에 가까운 상태에서 재처리하여 감압경유와 같은 고비점유분을 얻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끓는점이 낮은 감압경질경유, 감압중질경유 및 감압중유를 탑 상부로부터 단계적으로 생산하게 되며, 생산된 감압경유와 중유는 탈황 및 분해를 위해 후속공정으로 이송됩니다.

(3) 수첨분해공정(HCR, Hydro Cracking Unit)

감압증류탑에서 생산된 부가가치가 낮은 중질유를 분해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양질의 경질유로 생산하는 공정입니다. 분해 및 불순물 제거가 일어나는 반응기 영역과 반응에 필요한 수소를 공급하는 순환가스영역, 반응된 제품을 끓는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분리하는 증류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생산된 등유와 경유는 제품 배합원료로 사용되며 LPG와 납사는 후속공정으로 이송하여 처리됩니다.

(4) 열분해공정(DCU, Delayed Coking Unit)

상압 및 감압 증유를 490℃의 고온에서 열분해하여 경질유분과 부산물인 코크스를 생산합니다. 생산된 제품들은 탈황공정 및 수첨분해 공정으로 공급되며 코크스는 연료로 사용되거나 제품으로 출하됩니다.



현대오일뱅크 본사인 대산공장은 #1 공장, #2 공장, BTX 공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생산시설 소개

총 시설능력(단위: 천 배럴/일)

공정명	#1 Plant	#2 & HOU Plant	#1 BTX	#2 BTX	Total
상압증류 공정(CDU)	110	280			**390**
감압증류 공정(VDU)	76	-			**76**
LPG 분리 시설(LER)	9	7.5			**16.5**
납사/모개스* 처리 시설					
– 납사 탈황 공정(NHT)	12	22			**34**
– 납사 개질 공정(PLT)	4	21			**25**
– 모개스 탈황 공정(MHT)	-	34			**34**
– 알킬레이트 생산 공정(ALK)	-	16			**16**
등/경유 처리 시설					
– 등유 탈황 공정(KHT)	-	58			**58**
– 경유 탈황 공정(GHT)	22	102			**124**
– 등유 메록스 공정(KMX)	27	-			**27**
중질유 탈황/분해 시설					
– 수첨분해공정(HCR)	37	-			**37**
– 열분해 공정(DCU)	35	-			**35**
– 중질유 탈황 공정(RDS)	-	79			**79**
– 유동층 접촉분해 공정(FCC)	-	62			**62**
BTX 공정(톤/년)					
– 벤젠 생산	-	-	120,000	115,000	**235,000**
– 파라자일렌 생산	-	-	380,000	800,000	**1,180,000**

* 모개스(Mogas): Motor gasoline의 약자로 휘발유를 배합하는 기재의 일종

(5) 납사 탈황공정(NHT, Naphtha Hydro Treating), **등유 탈황공정**(KHT, Kerosene Hydro Treating) **및 경유 탈황공정**(GHT, Gasoil Hydro Treating)

납사, LPG 중의 불포화 탄화수소의 포화, 유황 및 질소 성분을 제거하는 납사탈황공정에서는 고온 및 고압에서 촉매를 이용해 수소첨가하여 질소와 산소 등의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등유탈황공정에서는 상압증류공정에서 공급되는 황, 질소, 산소 등을 포함하고 있는 등유에 수소를 첨가하여 저황 등유로 전환해 품질을 개선합니다. 경유탈황공정에서는 상압증류공정 및 열분해공정에서 생산된 경유 중의 유황성분을 수소첨가하여 96% 이상 제거하며, 생산된 제품은 탱크로 이송되어 각종 제품의 배합원료로 사용됩니다.

(6) 납사 개질공정(PLT, Platforming)

상압 및 분해공정에서 생산된 저옥탄가의 납사를 고옥탄가의 방향족 성분이 풍부한 개질납사로 전환하는 공정입니다. 공정은 개질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 영역과 반응 중 생성된 촉매 불순물을 제거하는 재생부분으로 구성되며, 생산된 개질 납사는 휘발유 배합원료나 BTX의 원료로 사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인 수소가스는 각종 수첨탈황 공정으로 공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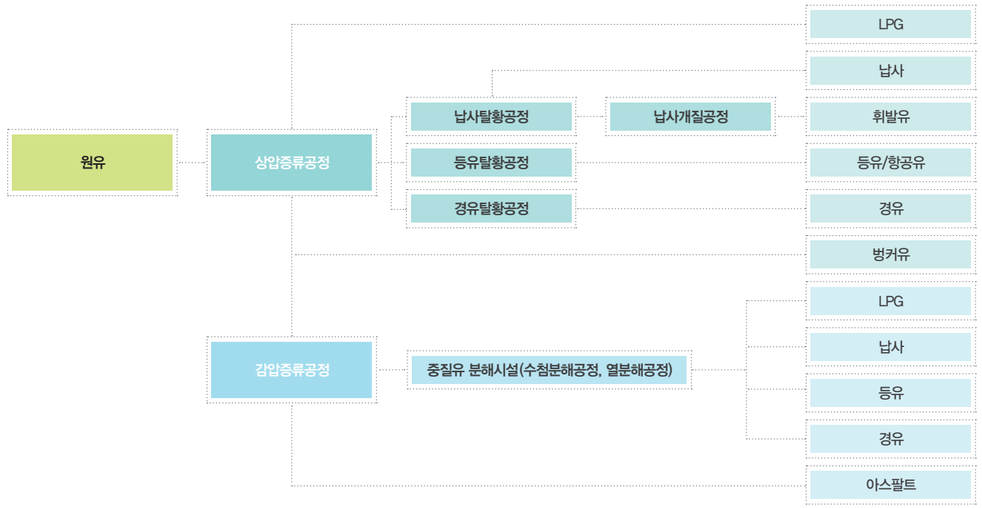
(7) 상압잔사유 탈황공정(RDS, Atmospheric Residue Desulfurization)

고유황 상압잔사유를 원료로 고온, 고압에서 수소를 첨가하여 탈황반응을 시키는 공정으로서, FCC공정의 원료로 사용되는 저유황 연료유와 함께 일부 경질유를 생산합니다.

(8) 유동층 접촉분해공정(RFCC, Residue Fluidized Catalytic Cracking)

RDS 공정에서 탈황된 저유황 상압잔사유를 원료로 유동성 촉매를 이용하여 고온에서 분해, 휘발유를 생산하고 후속 공정인 PRU/Butamer/Alkylation 공정의 원료가 되는 Light Olefin 및 B–C를 생산합니다.

공정흐름도



고도화사업

하루 처리량 6만 2,000 배럴 규모의 제2 고도화 시설을 성공적으로 가동하며 업계 최고 수준인 34.4%의 고도화율 1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함께 정제마진의 확대를 통한 수익 개선과 정유부문에서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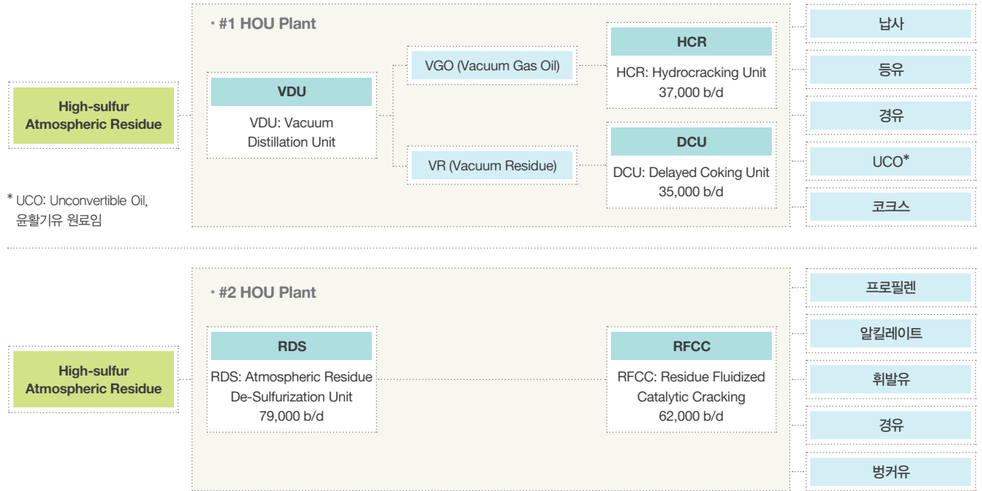


고도화 시설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9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2조 6,000억 원이 투입된 제2 고도화 시설을 성공리에 준공하여 기존 고도화 설비 7만 2,000 배럴에 6만 2,000 배럴이 더해진 총 13만 4,000 배럴의 고도화 설비를 보유함으로써 원유정제부문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유산업에서 고도화 시설은 원유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질유분을 고부가가치 및 환경친화적인 휘발유, 경유, 프로필렌, 알킬레이트의 경질유분으로 전환시키는 최첨단 시설을 말합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제1 상압증류공정에서 생산된 중유를 분해하는 제1 고도화 시설과 제2 상압증류공정에서 생산된 중유를 분해하는 제2 고도화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1 고도화 시설은 1989년부터 가동되어 주로 등유 및 경유를 생산하는 시설로 수첨분해공정(HCR, Hydrocracking Unit)과 열분해공정(DCU, Delayed Coking Unit)이 있습니다. 정제할 수 있는 시설규모는 수첨분해공정은 일일 3만 7,000 배럴, 열분해공정은 3만 5,000 배럴입니다. 제2 고도화 시설(#2HOU)은 정제과정에서 나온 저급 중유에 수소를 첨가해 황성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중질유 탈황공정(RDS)설비, 중유를 원료로 액화가스(LPG)와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연료인 프로필렌 등을 생산하는 설비인 중질유 접촉분해공정(FCC) 등이 있으며, 정제할 수 있는 시설규모는 중질유 탈황공정은 일일 7만 9,000 배럴, 유동층 접촉분해공정은 일일 6만 2,000 배럴입니다.

고도화 시설 공정흐름도



정제마진 개선 및 수출시장 확대



제2 고도화 증설로 인해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고도화 설비 7만 2,000 배럴에 6만 2,000 배럴이 더해진 총 13만 4,000 배럴의 고도화 설비를 갖추었으며, 이로써 총 정제능력 대비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능력을 나타내는 고도화율에서 34.4%를 기록하여 업계 최고의 고효율, 고부가가치 회사로 거듭났습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고도화율을 바탕으로 원유정제 후 약 40~50%를 차지하는 상압 잔사유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여 정제마진 개선 및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품질에 있어서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휘발유 및 경유 제품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황 함량 규격 15ppm 이하를 충족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석유제품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미국 등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석유제품 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제2 고도화 시설을 기반으로 정제마진 확대를 통한 지속적인 수익 개선을 이루고, 정유부문에서의 한 차원 높아진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BTX 증설사업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분야로의 확장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도전을 감행, 제2 BTX 사업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재편을 모색하며 보다 큰 미래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제2 BTX 증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009년, 석유화학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日 코스모석유와 합작으로 현대코스모(주)를 설립하였으며 2011년 4월 EPC 착수 이후 19개월 만인 2012년 11월에 기계적 준공을 달성하였으며, 2013년 2월부터 상업가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2 BTX 증설사업은 혼합자일렌(Mixed Xylene)을 원료로 사용하여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하는 합성섬유나 각종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되는 파라자일렌(P-Xylene)과 벤젠(Benzene)을 생산하는 설비로 대산 본사 인근 약 8만 5,000여 m² 부지에 약 32만 명의 공사인원을 투입했으며 2011년 4월 EPC 착수 후 무재해 300만 인시 달성과 계약공기 대비 5개월 단축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이번 설비는 합작사인 코스모석유가 생산하는 혼합 자일렌(Mixed Xylene)을 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 원자재 가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제품 수출도 두 회사의 공동 마케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어서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BTX 공정흐름도

• 제1 BTX 공정흐름도



• 제2 BTX 공정흐름도



석유화학사업 확장으로 사업구조 다각화



제2 BTX 증설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통해 연산 80만 톤 규모의 파라자일렌(P-Xylene), 12만 톤 규모의 벤젠(Benzene) 등 연산 92만 톤 규모의 BTX 생산시설을 증설해 석유화학 부문 생산 능력이 총 140만 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신규 공장 증설로 인하여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석유화학제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90만 톤에 달하는 석유화학 기초원료의 전량 해외수출을 통해 연간 1조 원 가량의 수출 증대 효과와 함께 국가경제에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번 제 2 BTX 완공을 통해 정제분야에 치우친 사업구조를 다각화하고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는 원동력을 만들 것입니다.

신사업과 해외 영업망 강화

2012년 현대오일뱅크는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활기유 및 유류저장 신규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또한 해외법인과 지사를 설립하며 해외 지사들의 행동반경을 넓히고 독자적인 사업 영역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석유정제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하여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윤활기유사업

2012년 4월 윤활기유사업을 위해 세계적 오일 메이저인 로얄더치쉘과 합작으로 현대쉘베이스오일(주)를 설립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충남 대산공장 내 3만 3,000㎡(약 1만여 평) 부지에 들어설 윤활기유 공장을 착공하였습니다. 하루 2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2014년 하반기 기계적 준공을 마치고 본격 상업 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활기유사업은 당사 수첨분해공정의 부산물을 사용하여 윤활유의 원료가 되는 윤활기유를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제한적인 원료로 진입장벽이 높아 안정적인 이익률을 보여주는 정유회사의 가장 확실한 수익원 중 하나로 윤활기유 시장은 향후에도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아시아에서 성장폭이 큰 상황입니다.

향후 윤활기유 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제품 대부분을 쉘의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 최대 소비국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할 예정이며 2015년부터는 연간 1조 원 내외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류저장사업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2월 신규 법인 '현대오일터미널'을 설립하고, 스틱인베스트먼트 사모투자펀드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며 330억 원 조달에 성공하였습니다. 2011년 울산 신항에 총 사업비 936억 원을 투입,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을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유류저장 시설을 착공한 이후, 현재 8만 6,821㎡(약 2만 6,000평)에 이르는 바다 매립 공사를 마무리하고 일부 구간에서는 상부 저장시설을 위한 기초 파일(Pile)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 사업은 최대 8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총 28만 KL 규모의 저유소가 들어설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내외 석유제품 물동량을 유치해 동남권 최대의 석유제품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화주의 위탁 제품을 해외 및 국내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레이딩 서비스를 대행하거나 해운거점 기지의 특성을 살린 벙커링, 제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브랜딩 등 다양한 수익사업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해외법인 및 지사 설립



해외 지사들의 행동반경을 넓히고 독자적인 사업 영역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인화를 적극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 법인인 중국 상해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상해 법인은 그 동안 현대오일뱅크 본사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영업을 돕는 지사의 형태였으나, 향후에는 독자적인 트레이딩 사업을 시작하고 중국 내수시장에 직접 진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석유제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더욱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성장 잠재력이 크고 다양한 사업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에 2012년 7월 신규 지사를 설립하였습니다. 베트남은 높은 경제 성장률에 비해 석유 공급이 부족한 시장입니다. 베트남지사는 현대오일뱅크의 대 베트남 제품 수출 확대의 선봉에 설 것이며 나아가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의 핵심 기지가 될 것입니다.

품질 정책

철저한 단계별 품질점검과 체계적인 품질불만 대응체계를 통해 사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제품의 질적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로 근원적 품질관리에 주력하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질경영 방침과 품질관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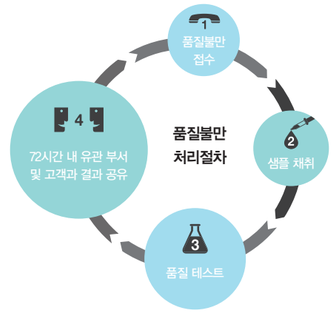


고객만족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는 제품의 생산에서 주유소 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에 대하여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합니다. 특히 최종 유통단계에 대한 수준 높은 관리를 위하여 자체 유통단계 사전품질점검업무를 연중으로 시행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자사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최종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저하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원재료 검사, 공정 간 검사, 제품 검사, 유통 검사 등 단계별 품질관리를 엄격히 실시한 결과 2012년 지식경제부 및 환경부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연료 품질검사에서 모두 합격하였으며,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고 정유 4사 등 국내 다수의 석유 관련 시험실이 참가한 '2012 연료유 · LPG · 아스팔트 정밀도 비교시험'에서 전 유종, 전 항목에 걸쳐 허용 오차 범위 내의 정확도로 품질시험의 객관적 신뢰성을 입증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현대오일뱅크 품질보증팀에서는 2012년 JIS K 2207 스트레이트아스팔트에 대해 국내 정유사 최초로 외국으로부터 제품을 인정받았습니다. 2012년에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잘 이행하여 재인정을 받아 품질 및 관리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품질불만 대응체계



현대오일뱅크의 품질운영팀은 고객품질불만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접수된 불만사항을 유관 부서와 협의하여 조치하며 그 결과를 고객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조치 과정에서 고객의 품질불만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을 제거하여 고객 관점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상시적이고 신속한 고객불만 처리를 위해 판교에 최첨단의 시험분석 장비를 갖춘 고객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험분석의 신속성과 더불어 품질관리의 현장성 또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고객불만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규정에 의거하여 72시간 내 고객방문 및 불만사항 협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샘플을 채취하여 고객불만 사안별로 품질테스트 항목을 정해 분석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품질불만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전 영업사원과 주유소 운영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현대오일뱅크 품질지식' 책자 발간을 통해 전 임직원이 고객 품질불만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객의 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물질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보건 및 안전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의 견인차, 중앙기술연구원



지난 2011년 11월 사업구조 다각화와 신사업 추진의 견인차로서 판교테크노밸리에 R&D 전문 연구 센터인 '중앙기술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중앙기술연구원은 대산 본사와 서울, 부산 등 전국사업장 별로 흩어져 있는 기술개발 기능과 연구 인력을 통합한 현대오일뱅크의 차세대 연구개발 메카로서 원유정제 신기술은 물론 윤활기유, 차세대 연료, 석유화학제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개발과 미래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대학과의 산학 협력,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동사업 추진, 외국기업과의 석유 및 석유화학 분야 기술 협력에도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일본 BTX 합작 파트너인 코스모석유와 R&D 분야를 비롯해 에너지 산업 전반에 관한 기술 협력 MOU를 체결하고 기술 인력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앙기술연구원은 우수 인재의 요람 및 신성장동력 발굴의 견인차로서의 막중한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비전과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연구개발 분야는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사업 다각화 전략과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속적으로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문제 해결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둘째,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철화학, 프로필렌 유도체, 윤활기유사업, 용제, 개질 아스팔트, 납사고부가화, 셰일가스 등 유망 사업 분야 진출에 필요한 생산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원의 역량을 최대한 집중할 것입니다.

셋째,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킬 핵심 우수 인재의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기술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것이며, 회사의 위상과 비전에 걸맞은 기술적 위상을 확보하고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마케팅 정책

브랜드 가치 제고, 계열 주유소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서비스 품질 향상, 고객 로열티 강화와 제휴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영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가치 제고

현대오일뱅크는 2010년 현대중공업 가족으로 새출발한 이후 기업 선호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친근한 기업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축구 K리그 타이틀 스폰서십과 울산현대 축구단 스폰서십, KCC 프로농구단 후원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으며, 잠재고객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드림콘서트, 대학생 마케팅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오일뱅크는 '디자인 No.1 정유사'를 목표로 모든 마케팅 활동에 디자인 전략을 적용하였습니다. 통합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사적인 CI(Corporate Identity) 규정을 확립하여 주유소 외관, 유니폼, 광고물, 사무실 등 모든 공간에 일관되고 표준화된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객과의 최접점인 주유소에 회사 고유 캐릭터와 아트월 등을 적용한 현대오일뱅크만의 주유소 디자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계열 주유소가 각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열 주유소와의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PRM, 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



현대오일뱅크는 2012년 계열 주유소와의 관계 강화 프로그램인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을 도입, 주유소 운영인에게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을 제공함으로써 회사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주유소 운영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퀸즈 파티', '힐링 캠프', '어린이 산업원정대' 등 리프레시 프로그램과 대형 병원 건강검진 할인, 경조용품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프로그램 지원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유소 매출 증대와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판촉물품과 주유소 도색, 주유원복 등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주유소를 연중 순회하며 주유소 근무자들에게 서프라이즈 파티를 열어주고, 주유 서비스 업무를 지원해주는 'Thanks Team'을 국내 최초로 운영함으로써 계열 주유소에 '감동'을 전함과 동시에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확고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품질 향상



업계 최초로 서비스 및 지역, 문화, 공연 등 제휴 전문가인 'MD(Market Designer)'를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주유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문화, 공연 등 제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준 서비스 시범과 주유원 교육을 담당하고 주유소 영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웰컴팀 조직을 운영하며 고객의 관점에서 마케팅 활동과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고객자문단' 제도를 운영하여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현대오일뱅크는 한국표준협회가 선정한 2012년 '한국 서비스 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Service Quality Index)'에서 주유소 부문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고객 응대의 최접점인 현대오일뱅크 고객센터는 한국표준협회 주관의 '콜센터 품질지수(KS-CQI, Korean Standard-Contact Service Quality Index)'에서 조사 대상 161개 전체 기업 중 1위에 선정되었으며,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관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KSQI, 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콜센터 부문에서는 4년 연속 업계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고객 로열티 강화

현대오일뱅크의 마케팅 정책은 1,200만 명에 달하는 보너스카드 고객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디지털 쿠폰 시스템을 활용, 고객의 연령별, 지역별 특성, 거래형태 등의 정보와 함께 주유소 별 영업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CRM'과 비용 효율성이 뛰어난 제휴 고객 대상 CRM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고객 확보의 기반이 되는 보너스카드의 가치를 증대시키고 고객의 로열티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휴 마케팅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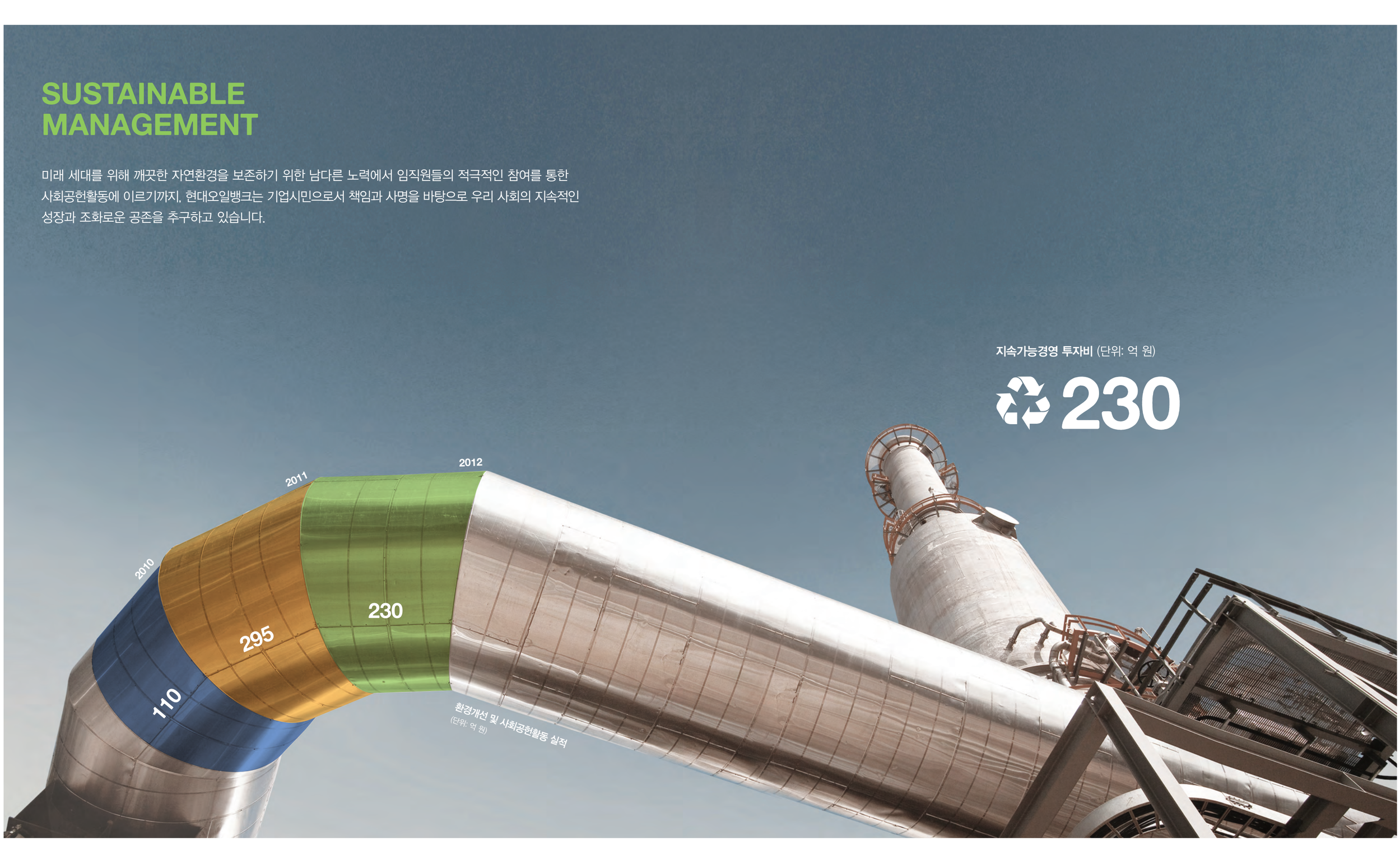
2010년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편입 이후 신용카드, 백화점, 대형 할인점, 자동차, 보험, 식음료/외식 업계, 현대 관계사는 물론 각 업종별 국내 선두 기업들과의 제휴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년간 고유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 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사와의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가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제휴 신용카드를 활발히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형공연 및 축제, 할인점 제휴 등 전국의 지역별 제휴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재미있고 할인 혜택이 가득한 주유소'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 주유소 현장 중심의 프로모션과 지속적인 지역 제휴 마케팅 시행 등 차별화된 마케팅 활동을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해 나갈 계획입니다.

SUSTAINABLE MANAGEMENT

미래 세대를 위해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남다른 노력에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사회공헌활동에 이르기까지, 현대오일뱅크는 기업시민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경영 투자비 (단위: 억 원)

230



환경개선 및 사회공헌활동 실적
(단위: 억 원)

환경경영

현대오일뱅크는 경영활동 전반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대기, 토양, 수질, 해양 등에 대한 정부정책과 법적 기준을 항상 준수합니다.



현대오일뱅크 환경사랑사진공모전 대상 수상작

1. 통합환경경영시스템

현대오일뱅크의 통합환경경영시스템은 환경과 안전보건의 통합시스템 구축 및 환경정보 공개, 환경사고 대응교육, 녹색구매 확대, 폐기물 위탁처리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2007년 SHE(Safety, Health and Environment)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산된 정보를 전사적으로 통합, 공유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대내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있습니다. SHE 통합시스템은 통합 안전 · 보건 · 환경, 교육 · 훈련의 각 분야별 세부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존 시스템과 유기적인 데이터 공유와 연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경영시스템

- **통합시스템구축 |** 환경안전보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환경정보 공개 |** 각종 환경 데이터와 환경 활동에 대한 투명한 공개
- **환경교육/훈련 |** 화재, 상해, 환경 사고 시 대응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
- **녹색구매 확대 |** 2005년 녹색구매 협약 체결 이후 친환경제품 구매 확대
- **폐기물 위탁 처리 |** 부산물 및 폐기물의 처리/관리를 위해 전문업체 위탁 처리

2.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활동

현대오일뱅크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생산을 통해 국가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초저유황경유 및 친환경휘발유 등청정연료를 생산하기 위한 CFP(Clean Fuel Project) 건설을 시작으로 전기 집진기, 축열식 소각설비, 탈질설비 등 최적방지시설 도입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 저감을 위한 배출원 저감 및 지원시스템(LDAR: Leak Detection & Repair)을 연차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까지 출하시설 유증기 회수시설(VRU: Vapor Recovery Unit) 및 폐수처리 고도화 시설 등 환경 보전을 위한 투자를 매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환경개선투자 주요실적

연도	내용	투자비용
2011~2012	탱크지역 토양정화	20억 원
2007~2010	VOC 저감시설 투자	27억 원
2007~2012	보일러/가열로 SCR 설치	107억 원
2008	폐수처리시설 RTO	21억 원

2) 환경개선 투자계획

연도	내용
2012~2015	유증기 회수설비(VRU) 및 #2 HOU LDAR 설치 등 총 260억 원 환경투자 예정

3. 환경감사 및 점검 실시

현대오일뱅크는 전사 환경리스크 사전 예방 및 제거를 통해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자체적으로 정기 환경점검 및 환경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환경점검	환경감사
목표	• 환경리스크 발굴 및 예방 활동 점검을 통한 리스크 최소화	• 환경리스크 관리 및 개선 사항 이행 여부 조사를 통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환경관리 달성을 도모
내용	• 환경법규,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 • 자체 환경점검 활동 이행 여부 • 시설물 관리 수준 확인	• 환경법규,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 • 자체 환경점검/교육 이행 및 결과에 대한 적정성 파악 • 개선권고 사항 이행 여부 • 본부별 Risk Management 항목 이행 여부

4. 기후변화 대응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제3자 검증을 통해 인정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

회사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 · 간접적인 에너지 저감 및 공정 개선 등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대산 본사 설립 시부터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하여 공정 운전에 필요한 스팀을 100% 자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한편 폐열회수, 운전방법 개선 등의 에너지 효율화를 다각적으로 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는 온실가스 감축등록사업* 및 지원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을 위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지식경제부가 주관하는 산업계 기후변화 대책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0년 에너지목표관리제 시범사업(지식경제부 주관) 및 2012년부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근거한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에 참여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 정책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화 기술 및 시설 투자를 통해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은 #2 HOU 신증설 완공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이 불가피하게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현대오일뱅크는 최고의 고효율 에너지 기업이 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회공헌

기부와 자원봉사, 재난구호, 사회복지, 환경보호, 소외 계층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현대오일뱅크는 아름다운 기업시민으로서의 동행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1% 나눔,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2011년 9월부터 매달 급여의 1%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 임직원들이 본인 급여의 1%를 1회성이 아닌 매년 정기적으로 기부하기로 한 것은 현대오일뱅크가 처음으로 타 기업들의 동참과 함께 우리나라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 나눔에는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1,800여 명 중 96%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와 주유소 사장단, 임직원 가족에게까지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현대오일뱅크 1% 나눔재단을 설립하여 복지 제도권에서 소외받는 어르신과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 장학재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하여 2003년 발족된 현대오일뱅크 장학재단은 매년 5,000만 원씩을 충남 대산 지역의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출하여 학업우수자 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중 · 고 · 대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합니다. 또한 장학재단은 대산 지역단체 및 기관의 대표를 임원과 실무위원으로 선임하여 재단운영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회사 참여 프로그램

현대오일뱅크는 모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과 공동으로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에 기금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유가 시대 고통분담을 위해 정유업계 공동으로 1,000억 원 특별기금 조성을 통해 에너지 소외계층 지원과 건전한 에너지문화의 보급 확산을 위한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부대인 연평부대에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세화물운전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기부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참여 자원봉사 활동



임직원 봉사활동 역시 이웃을 돕는 의미를 더하기 위해 봉사활동 시간만큼 봉사기관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직원들은 연 2회 열리는 '한마음 자원봉사 축제'를 비롯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매년 5,000여 시간의 봉사활동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2012년에도 현대오일뱅크 임직원들은 일곱색깔 무지개 가족봉사단, 1% 나눔재단의 봉사프로그램 참여 및 팀 단위로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는 봉사활동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니며 사랑 나눔 전도사로서 맹활약했습니다. 또한 개인기부 지원제도를 통해 임직원 기부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회사에서 1% 나눔재단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공헌활동



현대오일뱅크는 본사가 위치해 있는 대산 지역 주민들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된 서산지역 생산 쌀 구매사업을 통해 지역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농촌경제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럭방류사업과 삼길포 연안청소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와 어촌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객과 함께하는 나눔캠페인을 통해 2,400명의 고객들이 기부한 보너스카드 포인트에 회사가 동일 금액만큼 사회공헌 기금을 조성해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불우아동 57명을 후원했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 채용 지원



현대오일뱅크는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채용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채용하여 장애인 고용안정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채용된 장애인 세차도우미들은 전국 주유소 사업장에서 오일뱅크 가족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10년부터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고령자 취업단체와 협력하여 실버세대 주유사원 고용 프로그램인 '실버스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현재 전국의 주유소에서 약 1,000명의 실버스타가 활동 중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앞으로도 장 ·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의 자아실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FINANCIAL STATEMENTS

현대오일뱅크는 급변하는 시장상황에도 종합 에너지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더 큰 위상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더욱더 힘차게 전진할 것입니다.



영업이익 (단위: 십억 원)

307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예측정보에 대한 주의사항
당사가 동 보고서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활동, 사건 또는 현상은 동 보고서 작성시점의 사건 및 재무성과에 대하여 당사의 견해를 반영한 것입니다. 동 예측정보는 미래 사업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동 가정들은 결과적으로 부정확한 것으로 판명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가정들에는 예측정보에서 기재한 예상치와 실제 결과 간에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 불확실성 및 기타 요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에는 회사 내부경영과 관련된 요인과 외부환경으로 인한 요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에 한하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예측정보 작성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예측정보에 기재한 사항을 수정하는 정정보고서를 공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동 보고서 상에 당사가 예상한 결과 또는 사항이 실현되거나 당사가 당초에 예상한 영향이 발생한다는 확신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동 보고서에 기재된 예측정보는 동 보고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며, 당사가 이러한 위험요인이나 예측정보를 업데이트할 예정이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 경제 및 시장 상황

1. 2012 경제 현황

2012년 국제경제 환경은 유럽재정 위기 확산, 미국의 더블딥, 중국의 경착륙 우려, 각국의 환율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전세계 경제 성장이 둔화 추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글로벌 여건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세계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과 더불어 국내 경제에서는 가계부채 확대 및 부동산 경기 부진 등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내수경기를 위축시켜 2012년 경제성장율이 2% 초반까지 하락하였습니다. 금융시장은 대내외 여건 악화로 인해 주식 및 채권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은 크게 부진하였으나 실물경기 하락에 따른 저금리 기조로 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보였고 환율 또한 주요 선진국의 통화 안정 정책에 따라 원화 강세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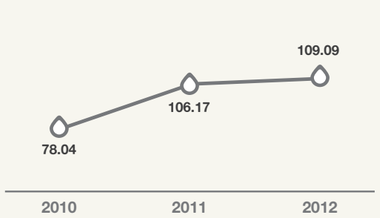
2. 시장 상황

1) 국제 원유시장 및 환율
국제 원유시장은 석유의 유한성, 지역적 편중성, 수요와 공급의 불확실성, 석유가격의 불안정성 등의 특성이 있습니다. 국제 원유시장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적 구조로 본다면 공급 측에 의해 시장이 조절되는 공급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은 중동에 몰려 있고, 중동의 산유국들이 전세계 확인매장량의 75%를 차지하며 전세계 연간 생산량의 4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동 산유국들은 OPEC의 회원국이므로 국제 원유시장에 OPEC의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하지만 비OPEC국가들의 국제 원유시장 점유율은 예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 원유시장에서의 가격형성은 단지 OPEC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비OPEC국가들의 움직임에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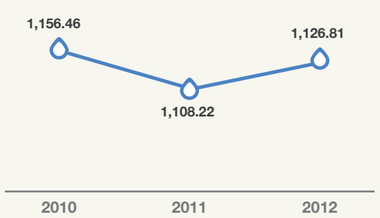
최근 국제 원유시장의 유가는 세계 석유 수요 증대, 비OPEC 지역 공급, OPEC의 시장정책, 재고 변동의 영향을 받는 경제적 요인과, 이란을 비롯한 중동지역과 기타 산유국의 정정불안에 의한 지정학적 요인 및 석유 선물시장이나 투기자금 행태 및 전략에 의한 기타 금융상품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2012년 국제유가는 상반기에는 이란 핵 사태, 유럽 재정위기 및 미국 경기하락 등 선진국 수요 감소와 중국 등 신흥국의 석유수요 성장세도 둔화되어 상반기에는 유가가 강한 변동성을 나타내면서 두바이유 기준 최고 $124.22에서 최저 $89.15을 오가며 급등락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나, 하반기 이후 미국 경기 회복, 이란 경제제재 및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협 요인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 등으로 2012년 평균 유가는 2011년 대비 배럴당 약 $3 상승한 $109/배럴을 기록하였습니다.

두바이유 연평균 가격 변동 추이 (단위: US$/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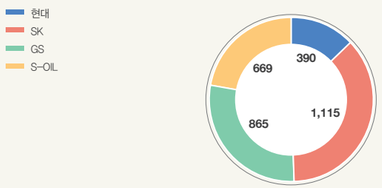
평균환율 변동 추이 (단위: 원/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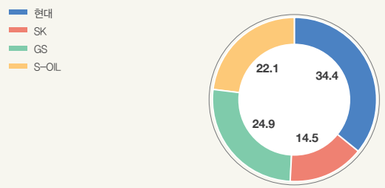
2012년 원-달러 환율은 유럽 재정 위기 고조 및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달러 강세가 나타났으나 하반기 이후 나타난 주요 선진국의 통화 완화 정책과 경상수지 흑자 영향으로 원화 가치가 절상되어 2012년 연평균환율은 전년평균 대비 18.6원/$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주요 경제 불안 요인의 해소와 주요국 통화 확대 정책이 이어짐에 따라 전반적으로는 원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2) 국내 정유산업 개요
국내 정유산업은 1990년대 초반 정유사들의 대규모 증설을 통해 2012년 기준 일 303만 9,000 배럴의 석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6위 규모의 상압정제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시설은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제 수출경쟁에 있어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정유 산업은 내수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석유 제품의 수출을 늘려오고 있으며 현재는 총 생산량의 50%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정제능력 (단위: 천 배럴/D)



고도화율 (단위: %)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또한 정유산업은 원유–제품 간의 가격 차이에 의한 정제마진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유정제 과정에서 생산되는 원유 대비 가치가 낮은 중질유를 고부가가치인 경질유로 전환하는 중질유 분해 시설 즉 고도화 시설을 증대하여 회사의 수익성을 제고하려고 합니다. 2012년 정유산업은 전세계 경기 침체로 정제마진이 약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였지만, 당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고도화율(34.4%)를 보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내수시장 점유율 확대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수익성 향상을 통해 동종사 대비 정유사업 이익률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II. 현대오일뱅크 사업 리스크 관리

1. 리스크 관리 조직

현대오일뱅크는 석유수급 불균형 등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CEO를 위원장으로 하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운영, 다양한 형태의 리스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외환 리스크, 유가 리스크, 정제마진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2. 유가변동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수입하는 중동산 원유가 대부분 선적월 기준 가격으로 계약되므로 운송하는 기간(1개월) 동안 발생하는 가격 변동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원유의 월물 비중을 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노출비중 관리 및 조기 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리스크 발생 시 시의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유관 업무 임원 및 팀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단계별 대응방안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습니다. 유가 변동에 의한 손실 방지를 위해 가동마진에 대한 헤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정가 입찰, 비축유/시설 임차 거래 시 반드시 헤지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 월물차 변동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가 월물차에 영향을 받는 물량을 리스크 노출 물량으로 정의하고, 유가 상황에 따라 리스크 노출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가변동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RFCC, HCR 등 고도화 설비의 가동 마진 변동을 헤지하여 일정 마진 도달 시 선물거래를 통해 고도화 마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외환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해외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고, 정제된 석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업종 특성상, 환율변동에 따른 외환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정기 및 임시 리스크 관리 위원회를 통해 기본적인 환위험관리전략을 수립/점검하고 있으며, 외환 리스크 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이에 의거하여 외환 리스크에 대한 헤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환위험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아 당사의 위험 노출 정도(Exposure)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으며, 노출된 위험에 대해서는 투기적 거래를 배제한 실물 거래와 연계된 헤지를 통해 위험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4. 이란산 원유 도입 및 기타 리스크 관리

현대오일뱅크는 최근 지정학적 문제로 급부상한 이란산 원유 도입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업가동에 들어간 제2 고도화 설비에 투입될 원유의 안정적 공급원 확보를 위해, 쿠웨이트 KEC 원유 물량을 늘리고, 카타르 원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동지역 내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했습니다. 또한 이란산 원유 도입과 관련한 리스크는 선적 60일 후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대금지급방법 변경 및 도입 물량 조정을 통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III. 2012년 경영실적

1. 주요 경영 내용

단위: 억 원

주요 손익지표	2012	2011	변동	
1. 매출액	217,004	190,169	26,835	14.1%
2. 매출원가	210,358	180,862	29,496	16.3%
3. 매출총이익	6,647	9,307	-2,660	-28.6%
4. 판매비와관리비	3,574	3,357	217	6.5%
5. 영업이익	3,072	5,950	-2,877	-48.4%
6. 금융손익	-807	-816	9	-1.2%
7. 기타영업외손익	-188	-689	501	-72.7%
8. 지분법손익	149	56	93	167.0%
9. 당기순이익	1,714	3,663	-1,950	-53.2%
영업이익율	1.42%	3.13%		-1.71%p
당기순이익율	0.79%	1.93%		-1.14%p

2012년 현대오일뱅크는 2011년 대비 생산시설의 가동율 증가 및 고도화 시설(#2 HOU)의 본격적 가동 등으로 2011년 대비 14% 증가한 21조 7,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안팎의 불확실한 환경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출 증대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외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이며, 석유제품의 수출액이 2012년 1위를 차지하는 데 큰 보탬이 되어 어려운 국가경제를 이바지하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유가변동성 확대에 따른 정제마진 약세와 비우호적인 유가 및 환율 움직임 등으로 2011년 대비 48.4% 감소한 3,072억 원을 기록하였으며, 당기순이익 역시 1,714억 원으로 전년대비 53.2% 감소하는 등 수익성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율과 당기순이익율은 전년대비 각각 1.71%p와 1.14%p가 감소한 1.42%와 0.79%를 기록하였습니다.

당사는 2012년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산시설을 업그레이드하고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당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고도화율(34.4%)을 통한 시설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내외 환경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원유정제 분야에 치우쳤던 그 동안의 사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BTX, 윤활기유, 폴리프로필렌 유도체 등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2 BTX 생산시설 증설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으며 2013년 1월에 충남 대산공장에 약 3만 3,000㎡(약 1만여 평) 부지 규모의 하루 2만 배럴의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윤활기유 공장을 착공하고,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유류저장사업에 진출, 울산 신항에 총 저유량 28만 KL의 대규모 저유시설과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을 2013년 말까지 완공 하는 등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국제유가 안정화 및 중국, 동남아시아 등 역내 신흥국의 석유수요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이익 실현이 전망되고, 세계경제 또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완만한 수출의 증가와 국제유가의 안정 등으로 어려웠던 2012년을 초석 삼아 2013년을 한 단계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2. 손익 분석

1) 매출

2012년에는 유가의 상승과 고도화 시설(#2 HOU)의 본격적 가동에 따른 가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매출액은 증가하였습니다.

당사는 제품 판매를 위해 국내외 법인은 물론 대리점, 현대오일뱅크 주유소 등 다양한 판매 · 유통망을 통하여 2012년 한 해 동안 약 1억 5,400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국내외에 판매하였습니다. 국내 판매는 당사가 직접 공급하는 대기업 및 정부 수요자와 당사나 주유소, 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일반수요자로 나뉘어 집니다.

소매

주유소, 대리점, 농협, 일반판매소, LPG충전소 등 최종소비자 혹은 다른 대리점, 일반판매소 등에 제품을 판매하며 주로 경질유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소매채널은 내수의 근간이 되는 채널로 당사는 전략지역의 신규개발을 확대하고 광고, 매스프로모션 강화 등을 통해 소매채널의 판매를 증대하고 시장지배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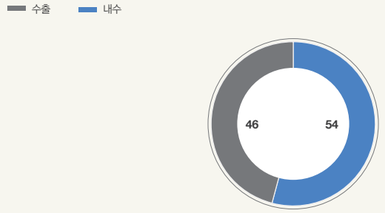
직매

일반산업체, 군/관납, 입찰 등의 법인영업 채널을 의미합니다. 소매채널이 주로 경질유를 공급하는 것과 달리 해상유, 항공유, 아스팔트, 납사유 등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당사는 중앙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품질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신규시장을 개척하여 판매 및 수익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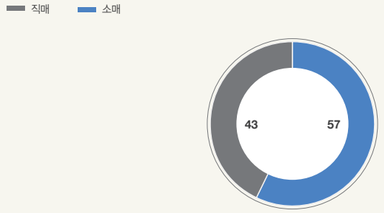
수출

당사는 생산제품 중 내수 수요를 초과하여 생산되는 제품은 해외시장에서 석유제품 트레이더, 종합상사 및 직접 수요자에게 장기 또는 현물 거래 형태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1년 고도화 시설 증설 완료 이후 가동량 증가 및 수출 품목이 다양해 짐에 따라 향후 수출 비중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유럽, 아프리카, 중남미, 호주 등의 신규시장 개척을 추진할 계획이며, 동남아 등지에 해외지사 설립 등을 통한 현지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012년 수출 / 내수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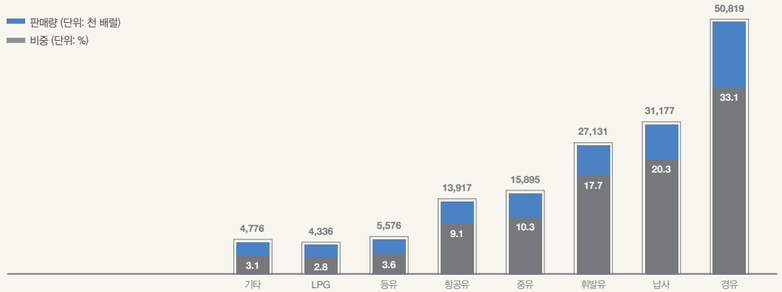


2012년 국내시장 매출 (단위: %)



#2 고도화 설비의 가동 이후 정제능력 대비 고도화 비율이 기존 17.4%에서 국내 최고수준인 34.4%로 상승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솔린, 항공유, 등유, 경유 등을 포함한 경질유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제품별 판매량 현황은 경유가 5,081만 9,000배럴로 가장 높은 33.1%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납사, 휘발유, 중유의 순이었습니다. 제2 고도화 설비 가동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반적인 사업 경쟁력 및 수익기반 강화로 연결되어 지난해 대비 내수 시장에서의 경질유 시장점유율이 1.9% 증가한 22.2%를 기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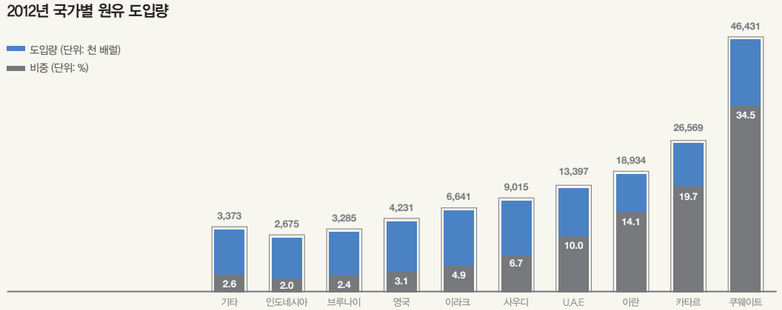
2012년 제품별 판매량



2) 매출원가

현대오일뱅크는 필요로 하는 원유 90%를 중동지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가동을 위해 도입 원유의 대부분을 산유국 소유 석유회사와의 장기계약을 통해 공급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12년에는 이란 경제 재제에 대비하여 당사 고도화 공정에 적합한 고유황 중질 원유 확보를 위해 쿠웨이트, 카타르 원유의 도입량을 확대하였으며 북해산 원유을 도입하는 등 향후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여 원가 경쟁력 확보 및 안정적인 수급라인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국가별 원유 도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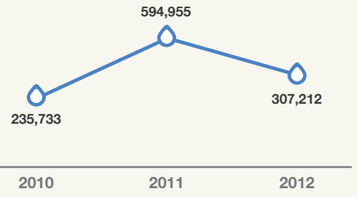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3) 영업이익

전세계 경기 부진으로 석유제품 증가세가 둔화되어 정제마진 약세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2분기에 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재고관련 손실이 과다하여 2012년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48.4% 감소한 3,072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영업이익 (단위: 백만 원)



4) 금융손익

당사의 2012년 금융손익의 합계는 2,926억 원으로 2011년의 2,338억 원 대비 25.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원화 강세에 따른 외환차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1	변동	
금융수익	1,060	761	299	39.2%
금융비용	1,866	1,577	289	18.3%
금융손익	2,926	2,338	588	25.1%

5) 당기순이익

매출은 증가하였지만, 경영환경의 악화로 인해 전년대비 정제마진이 급감하는 등 수익성은 2011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여 당기순이익은 1,714억 원으로 역시 전년대비 53.2% 감소하였습니다.

3. 재무 현황

1) 요약 재무상태

2012년 말 현재 당사의 연결 자산총계는 8조 4,445억 원으로 전년대비 0.6%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전체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등이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나, 재고자산이 감소 등에 의해 전년대비 3.9%가 감소한 3조 7,149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사가 5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현대코스모 주식회사의 추가 출자 투자 등으로 인해 비유동자산은 2.1% 증가한 4조 7,296억 원이었습니다. 단기금융부채 등의 감소로 인해 2012년 당사의 유동부채는 18.3%가 감소한 3조 1,938억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비유동부채는 사채 발행의 장기자금조달 등으로 인해 2조 4,892억 원으로 전년대비 24.7% 증가하였습니다. 자본총계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2조 7,61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단위: 억 원

주요 재무지표	2012	2011	변동	
유동자산	37,149	38,670	-1,521	-3.9%
비유동자산	47,296	46,315	981	2.1%
자산총계	84,445	84,985	-540	-0.6%
유동부채	31,938	39,102	-7,164	-18.3%
비유동부채	24,892	19,968	4,924	24.7%
부채총계	56,829	59,070	-2,241	-3.8%
지배부문	27,273	25,915	1,358	5.2%
자본금	12,254	12,254	0	0.0%
자본잉여금	-226	0	-22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94	-75	-19	-25.1%
이익잉여금	15,339	13,736	1,603	11.7%
비지배지분	343	0	343	
자본총계	27,616	25,915	1,701	6.6%
부채비율	205.79%	227.94%		-22.15%p

2) CAPEX

#2 HOU 프로젝트가 2011년 6월에 완공됨에 따라 2012년 신규투자가 전년대비 80% 감소하였으나 윤활기유 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회사는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억 원

구분	2012	2011	변동	
신규투자	1,152	5,892	-4,740	-80.4%
보완투자	786	843	-48	-5.8%
자본투자	1,761	143	1,618	1,131.5%
총계	3,699	6,869	-3,170	-46.1%

4. 유동성 및 자금조달

1) 유동성 현황

2012년 말 현재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자산 등으로 구성된 당사의 유동성은 1,463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한 유동성 증가 요인은 대규모 시설투자가 마무리 되어 대규모의 현금유출이 감소한 데 기인합니다. 당사는 유동성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해 항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 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Management's Discussion & Analysis

2) 자금 조달
당사는 고도화 설비 투자 종료로 인한 대규모 자금지출이 감소하였고, 불확실성 경영환경에 대비하고자 단기 유동부채를 감소시키고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는 등 상대적으로 장기부채를 증가시켜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체질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부채는 5조 6,829억 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고, 부채비율 역시 전년대비 22.1%p 개선된 205.8%를 기록하였습니다.

IV. 2013년 경영 목표

2013년은 주요국의 경기부양 효과 가시화 등 유가 상승요인이 있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불안 요인이 남아있고, 북미를 중심으로 쉐일오일과 같은 비전통 원유 공급이 증가할 전망으로 원유가는 전년대비 하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신규 정제시설 가동으로 석유 공급 규모가 증가하여 정제마진도 전년대비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2013년 경영 목표를 글로벌 성장 동력 확보로 정하고 아래의 4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 신규 사업 조기 정착
마진에 한계가 있는 원유정제에 치우친 현재의 사업구조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신규 사업을 통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유류저장사업, 윤활기유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앞으로도 신사업을 준비하는 데 많은 연구와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2) 안정적인 수익 창출
당사는 수익성이 높은 고도화 시설의 안정적인 가동, 고마진 해외 신규 시장 개발, 그리고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노력 등을 통하여 전년보다 증가한 영업이익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3년 석유화학 자회사의 증설 완료로 인한 수익 증가와 신규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로 사업구조 다각화 수준을 개선하여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안전한 공장 운영 및 생산성 극대화
정유산업은 공장의 지속적인 가동이 가장 중요한 장치산업입니다. 그러므로 공장의 안전가동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회사의 핵심가치입니다. 특히 2013년에는 안정 가동을 위한 대규모 정기 대보수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구성원 모두가 장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전체 생산설비를 최적화하고 당사의 생산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도록 전체공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습니다.

4) 역동적인 조직 문화
어떤 일을 추진하든지 그 조직에 속한 사람들의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에 따라 그 성과가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투자와 좋은 인재의 확보 및 조직문화는 회사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에 따라, 현대오일뱅크는 도전과 열정을 지닌 인재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창조해 나가고자 합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주주 및 이사회 귀중

본 감사인은 첨부된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2012년 12월 31일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연결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연결손익계산서,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결자본변동표 및 연결현금흐름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감사인의 책임은 동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이 연결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본 감사인은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본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확신하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내용을 뒷받침하는 감사증거에 대하여 시사의 방법을 적용하여 검증하는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연결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감사인이 실시한 감사가 감사의견 표명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고 본 감사인은 믿습니다.

본 감사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연결재무제표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의 2012년과 201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의 내용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1번지
삼 일 회 계 법 인
대 표 이 사 안 경 태

安昊台

2013년 3월 8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2013년 3월 8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첨부된 회사의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재무상태표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천 원

과목	주석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자산					
Ⅰ. 유동자산			3,714,895,369		3,867,000,958
1. 현금및현금성자산	4,6	107,473,025		68,512,945	
2. 단기금융자산	4,6,7	38,817,689		28,965,304	
3.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6,19	248,654		1,380,379	
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9,30	1,391,947,798		1,385,476,826	
5. 재고자산	10	2,088,992,735		2,304,309,869	
6. 기타유동자산		87,415,468		78,355,635	
Ⅱ. 비유동자산			4,729,607,868		4,631,495,559
1. 관계기업투자	11	159,993,625		32,984,403	
2. 장기금융자산	4,6,7	1,523,500		2,023,500	
3. 매도가능금융자산	4,6,8	3,075,175		3,075,175	
4.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6,9	146,888,545		126,602,212	
5. 투자부동산	12	26,634,006		26,634,006	
6. 유형자산	13	4,308,825,673		4,357,650,003	
7. 무형자산	14	82,667,344		82,526,260	
자산총계			8,444,503,237		8,498,496,517
부채					
Ⅰ. 유동부채			3,193,768,445		3,910,203,418
1. 단기금융부채	4,6,16	702,859,972		1,041,234,648	
2.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4,6,19	2,142,101		2,122,711	
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6,15,30	2,370,321,714		2,761,175,093	
4. 미지급법인세	27	29,104,888		32,016,988	
5. 충당부채	18	6,808,000		13,580,000	
6. 기타유동부채		82,531,770		60,073,978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천 원

과목	주석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Ⅱ. 비유동부채			2,489,164,382		1,996,818,490
1. 장기금융부채	4,6,16	2,311,734,550		1,856,628,838	
2.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4,6,15	44,122,475		11,780,045	
3. 확정급여부채	17	16,471,883		11,029,186	
4. 장기충당부채	18	7,911,889		10,814,644	
5. 이연수익		40,440,511		56,610,459	
6. 파생상품부채	4,6,19	5,940,814		4,953,277	
7. 이연법인세부채	27	62,542,260		45,002,041	
부채총계			5,682,932,827		5,907,021,908
자본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2,727,320,293		2,591,474,609
Ⅰ. 자본금	20		1,225,412,110		1,225,412,110
1. 보통주자본금		1,225,412,110		1,225,412,110	
Ⅱ. 자본잉여금			(22,595,908)		-
Ⅱ.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1		(9,410,295)		(7,520,668)
Ⅲ. 이익잉여금	22		1,533,914,386		1,373,583,167
비지배지분			34,250,117		-
자본총계			2,761,570,410		2,591,474,609
부채와자본총계			8,444,503,237		8,498,496,51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손익계산서

제 49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천 원

과목	주석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Ⅰ. 매출액	5,30		21,700,424,898		19,016,892,240
Ⅱ. 매출원가	24,30		21,035,770,857		18,086,191,602
Ⅲ. 매출총이익			664,654,041		930,700,638
Ⅳ. 판매비와관리비	23,24	357,442,069		335,745,589	
Ⅴ. 영업이익	2		307,211,972		594,955,049
Ⅵ. 금융수익	25	105,972,682		76,119,931	
Ⅶ. 금융비용	25	186,633,296		157,729,443	
Ⅷ. 기타영업외수익	26	310,634,062		458,447,995	
Ⅸ. 기타영업외비용	26	329,420,477		527,336,318	
Ⅹ. 지분법손익	11	14,938,823		5,595,113	
Ⅺ.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22,703,766		450,052,327
Ⅻ. 법인세비용	27	51,316,661		83,709,984	
XIII. 당기순이익			171,387,105		366,342,343
지배기업소유주지분			171,595,199		366,342,343
비지배지분			(208,094)		-
기본주당순손익(단위: 원)	28		700		1,49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제 49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천 원

과목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Ⅰ. 당기순이익		171,387,105		366,342,343
Ⅱ. 기타포괄손익		(13,153,607)		(54,668,061)
1.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748,553)		(12,273,081)	
2. 보험수리적손익	(11,263,981)		(41,147,686)	
3. 지분법자본변동	(529,601)		(1,307,277)	
4. 해외사업환산손익	(611,472)		59,983	
Ⅲ. 당기포괄손익		158,233,498		311,674,28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자본변동표

제 49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천 원

과목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비지배지분	총자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포괄손익	이익잉여금		
2011. 1. 1(전기초)	1,225,412,110	-	5,999,706	1,048,388,511	-	2,279,800,327
당기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366,342,343	-	366,342,343
현금흐름파생상품	-	-	(12,273,081)	-	-	(12,273,081)
보험수리적손익	-	-	-	(41,147,686)	-	(41,147,686)
지분법자본변동	-	-	(1,307,277)	-	-	(1,307,277)
해외사업환산손익	-	-	59,983	-	-	59,983
2011. 12. 31(전기말)	1,225,412,110	-	(7,520,669)	1,373,583,168	-	2,591,474,609
2012. 1. 1(당기초)	1,225,412,110	-	(7,520,669)	1,373,583,168	-	2,591,474,609
당기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171,595,199	(208,094)	171,387,105
현금흐름파생상품	-	-	(748,553)	-	-	(748,553)
보험수리적손익	-	-	-	(11,263,981)	-	(11,263,981)
지분법자본변동	-	-	(529,601)	-	-	(529,601)
해외사업환산손익	-	-	(611,472)	-	-	(611,472)
소유주와의 거래						
종속회사의 투자	-	(22,595,908)	-	-	34,458,211	11,862,303
2012. 12. 31(당기말)	1,225,412,110	(22,595,908)	(9,410,295)	1,533,914,386	34,250,117	2,761,570,410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

연결현금흐름표

제 49 기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 48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단위: 천 원

과목	주석	제 49 (당) 기		제 48 (전) 기	
Ⅰ. 영업활동 현금흐름			217,154,026		379,996,614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390,164,436		598,861,949	
가. 당기순이익		171,387,105		366,342,343	
나. 조정	29	480,967,499		364,268,862	
다. 자산,부채의 변동	29	(262,190,168)		(131,749,256)	
2. 이자의 수취		9,243,871		11,854,697	
3. 이자의 지급		(149,254,727)		(81,613,604)	
4. 법인세 납부액		(32,999,554)		(149,106,428)	
Ⅱ. 투자활동 현금흐름			(347,815,257)		(650,300,176)
1. 단기금융자산의 증가		(56,717,977)		(19,165,304)	
2. 단기금융자산의 회수		47,865,592		26,101,519	
3. 장기금융자산의 증가		(500,000)		(1,000,000)	
4. 장기금융자산의 회수		-		2,500	
5. 매도가능자산의 취득		-		(3,000,000)	
6. 유형자산의 취득		(232,389,495)		(678,502,089)	
7. 유형자산의 처분		26,728,011		26,174,114	
8. 무형자산의 취득		(1,235,807)		(5,581,675)	
9. 무형자산의 처분		1,365,590		3,066,435	
10. 관계기업지분의 취득		(112,600,000)		(7,500,000)	
11. 대여금및수취채권의 증가		(136,607,762)		(26,495,423)	
12. 대여금및수취채권의 회수		116,276,591		35,599,747	
Ⅲ. 재무활동 현금흐름			169,863,614		193,138,953
1. 단기차입금의 증가		59,045,867		300,000,000	
2. 단기차입금의 상환		(240,000,000)		(384,647,647)	
3. 장기차입금의 증가		9,916,544		415,878,000	
4. 사채의 발행		746,885,900		199,423,600	
5. 유동성사채의 상환		(450,000,000)		(336,668,000)	
6.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		(847,000)		(847,000)	
7. 비지배주주의 자본납입		44,862,303		-	
Ⅳ. 환율변동차이			(245,428)		12,559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순증가(감소) (Ⅰ+Ⅱ+Ⅲ+Ⅳ)			38,956,955		(77,152,050)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8,512,945		145,661,367
Ⅶ. 외화환산으로 인한 현금성자산 변동			3,125		3,628
Ⅷ.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107,473,025		68,512,945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

1. 일반 사항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와 그 종속회사(이하 "연결회사")는 1964년 11월 19일 설립되어, 석유류 제품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남 대산에 본사 및 제조시설이 있습니다. 회사는 현재 원유처리능력 일 390,000 배럴의 석유정제시설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현대중공업주식회사가 전체 지분의 91.1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1 종속기업 현황

2012년 12월 31일 현재 회사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지분율	소재지	결산월	업종
HDO Singapore Pte. Ltd.	100%	싱가포르	12월	석유제품트레이딩
MS Dandy Ltd.	100%	마샬아일랜드	12월	선박대여업
현대오일터미널(주)	70%	대한민국	12월	유류보관업
현대쉘베이스오일(주)	60%	대한민국	12월	윤활기유제조업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100%	중국	12월	석유제품트레이딩

1.2 종속기업 관련 재무정보 요약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요약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단위: 백만 원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HDO Singapore Pte. Ltd.	169,951,125	168,369,416	4,889,922,012	293,532
MS Dandy Ltd.	14,665,572	9,471,789	-	(677)
현대오일터미널(주)	76,112,669	1,365,470	22,960	(119,904)
현대쉘베이스오일(주)	32,160,410	2,595,516	-	(430,306)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15,267,010	13,338,678	20,973,727	303,891

2011년

단위: 백만 원

회사명	자산	부채	매출	당기순이익
HDO Singapore Pte. Ltd.	143,753,074	142,350,392	2,548,975,585	22,331
MS Dandy Ltd.	3,793,917	-	-	(11,91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1.3 연결대상범위의 변동

당기에 신규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중 신규로 연결에 포함된 기업

회사명	사유
현대오일터미널(주)	신규 출자하였습니다.
현대쉘베이스오일(주)	신규 출자하였습니다.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신규 출자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제정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1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연결회사가 채택한 제 · 개정 기준서
연결회사는 당기 중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에 따라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하여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으로 회계정책을 변경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영업손익의 산정방법을 소급하여 적용하였으며, 비교표시된 연결포괄손익계산서는 이러한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회계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영업이익으로 분류되었던 파생상품거래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등이 포함된 당기의 기타수익 297,281백만 원 및 기타비용 302,240백만 원과 전기의 기타수익 437,491백만 원 및 기타비용 415,071백만 원이 영업손익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당기 및 전기의 영업이익은 개정 전 기준과 비교하여 각각 4,959백만 원 증가 및 22,420백만 원 감소하였으나, 당기 및 전기의 당기순이익 및 주당순이익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 공표되었으나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는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되는 항목을 미래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는지 여부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조기 적용이 허용됩니다. 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이 연결재무제표에 미치는 유의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개정
동 개정 내용에 따르면, 보험수리적 손익에 대한 범위접근법의 적용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발생한 모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즉시 인식됩니다. 또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발생한 모든 과거근무원가를 즉시 인식하며, 이자원가와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기대수익을 별도로 산출하던 것을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 적용하여 계산한 순이자비용(수익)을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파악 중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의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기업이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지배력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투자자는 피투자에 대한 관여로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 있을 때 피투자자를 지배하게 됩니다. 동 기준서는 지배력을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회사는 동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의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은 약정의 법률적 형식보다는 약정의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초점을 맞추어 공동약정의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공동약정은 공동영업과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은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공동영업자가 보유하는 것으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직접 회계처리합니다. 공동기업은 공동기업참여자가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회사는 동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의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종속기업, 공동약정, 관계기업, 연결구조화기업 및 비연결구조화기업을 포함하는 타기업에 대한 모든 형태의 지분에 요구되는 공시사항을 제공합니다. 동 기준서는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회사는 동 기준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측정'은 공정가치를 명확히 정의하고, 공정가치의 측정을 위한 체계 및 공시사항을 단일의 기준서에서 정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일관성을 제고하고 복잡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는 다른 기준서에서 이미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공정가치측정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기준서에서 공정가치 측정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경우 적용되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동 제정 내용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상기의 개정 기준서의 적용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영향을 파악 중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2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회사가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기업(특수목적기업을 포함)이며, 일반적으로는 과반수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행사 또는 전환가능한 잠재적 의결권의 존재 여부 및 그 영향은 회사가 다른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데 고려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의결권이 50% 이하인 경우에도 사실상의 지배력에 따라 재무 및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 하는 지를 평가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일에 제공한 자산, 발행한 지분증권, 인수하거나 발생시킨 부채의 공정가치의 합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전대가는 조건부 대가 지급 약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산 및 부채의 공정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자산 · 부채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준서의 요구사항이 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사업결합이 단계적으로 발생한 경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은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변동분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회사가 지불할 조건부대가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 또는 부채로 계상된 조건부대가의 후속적인 공정가치의 변동은 기준서 제1039호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대가는 재측정되지 않으며, 후속적으로 정산될 때 자본내에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은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간에 발생하는 거래와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은 제거됩니다. 미실현손실은 이전된 자산의 손상 여부를 우선 고려하고 제거됩니다.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있게 적용하기 위해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되었습니다.

(2) 지배력의 변동이 없는 종속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변동
지배력의 상실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지배지분과의 거래는 자본거래, 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불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종속기업의 순자산의 장부금액 중 취득한 지분 해당액과의 차이는 자본에 계상됩니다. 비지배지분에 대한 처분에서 발생하는 손익 또한 자본에 반영됩니다.

(3) 종속기업의 처분
연결회사가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기업에 대해 계속 보유하게 되는 지분은 동 시점에 공정가치로 재측정되며, 관련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이러한 공정가치는 해당 지분이 후속적으로 관계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의 최초 인식시 장부금액이 됩니다. 또한, 해당 기업에 대하여 이전에 계상하고 있던 기타포괄손익의 금액은 연결회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를 직접 처분하였을 경우와 동일하게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인식되었던 기타포괄손익 항목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4)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지배력은 없는 모든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내지 50%를 소유하고 있는 피투자 기업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의 관계기업 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 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투자가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 중 비례적 금액만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관계기업 투자의 취득 이후 발생하는 관계기업의 손익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관계기업의 기타포괄손익 변동액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취득 후 누적변동액은 투자금액의 장부금액에서 조정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에 대한 연결회사의 지분이 기타 무담보 채권을 포함한 관계기업 투자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하게 되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을 위해 대납하였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의 손실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연결회사는 매보고기간마다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다면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를 손상차손으로 인식합니다. 동 손상차손 금액은 손익계산서 상 '관계기업에 대한 손상차손'으로 하여 별도로 표시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미실현손실도 그 거래가 이전된 자산이 손상되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동일하게 제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의 회계정책과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지분율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 영향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의 지분감소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5) 조인트벤처
조인트벤처는 연결회사가 다른 조인트벤처 참여자와 계약상 합의에 의하여 공동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업입니다. 조인트벤처투자는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관계기업과 마찬가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연결회사의 조인트벤처투자금액은 취득시 식별된 영업권을 포함하며, 손상차손누계액 차감 후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조인트벤처로부터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 연결회사는 그 자산을 제3자에게 재매각하기 전까지는 조인트벤처의 이익 중 연결회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자산의 실현가능가치 감소나 자산손상의 증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실을 즉시 인식합니다.

2.3 영업부문

영업부문은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보고되는 사업본부별로 공시되고 있습니다(주석5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 말의 외화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 · 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과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순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상 "금융수익(비용)"으로 표시되며, 이 외의 순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상 "기타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됩니다.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외화표시 화폐성 유가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상각후원가의 변동으로 인한 부분과 기타 유가증권의 장부금액 변동으로 구분하며, 상각후원가의 변동부분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 장부금액의 변동에서 발생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 · 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으로,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표시통화로의 환산
연결회사의 표시통화와 다른 기능통화를 가진 모든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결회사의 표시통화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1)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2) 수익과 비용은 해당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3) 위 1), 2)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일부 또는 전부 처분하는 경우, 자본에 인식한 순투자에 대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의 처분손익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는 경우, 자본항목으로 인식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기업의 취득에서 발생하는 영업권과 공정가치 조정액은 해당 해외기업의 자산 · 부채로 간주하며, 해당 해외기업 기능통화의 마감환율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5 현금및현금성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은 보유중인 현금, 은행예금, 기타 취득일 현재 만기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매우 유동적인 단기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6 금융자산

2.6.1 분류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그 취득목적과 성격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과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은 최초 인식시점에서 이러한 금융상품의 분류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1)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연결회사는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상품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
대여금 및 수취채권은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될 수 있으며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입니다.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며 이외의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거나, 다른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비파생금융상품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은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거나 경영진이 처분할 의도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4) 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이며, 재무상태표에 "장기금융자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중요하지 아니한 금액 이상의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체 분류는 훼손되어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 됩니다. 만기보유금융자산은 보고기간 말 현재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이외의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됩니다.

2.6.2 인식과 측정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매거래는 매매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을 제외한 모든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에 거래원가를 가산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거래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및 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발생기간에 손익계산서상 기타외영업수익으로 표시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배당수익은 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된 화폐성 및 비화폐성 증권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 인식된 누적 공정가치 조정 금액은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매도가능금융자산 및 만기보유금융자산의 이자는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되며, 매도가능금융자산의 배당금은 회사의 배당금 수취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6.3 상계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 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됩니다.

2.6.4 제거

금융자산은 그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또는 이러한 권리를 양도하고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이전하거나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이전하지도 않으면서 해당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 제거됩니다.

2.7 금융자산의 손상

2.7.1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자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은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사건("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의 추정 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금융자산이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판단하는 데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금융자산의 발행자나 지급의무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이자지급이나 원금상환이 장기간 이상 연체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 또는 법률적 이유로 인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이나 기타 재무구조조정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 재무적 어려움으로 당해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의 소멸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과 최초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추정미래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차이로 측정합니다(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미래의 대손은 제외함). 손상차손은 당해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이변동이자율인 경우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할인율은 계약에 따라 결정된 현재의 유효이자율입니다. 연결회사는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을 사용한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근거하여 손상차손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후속기간 중 손상차손의 금액이 감소하고 그 감소가 손상을 인식한 후에 발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예: 채무자의 신용등급 향상)에는 이미 인식한 손상차손을 직접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7.2 매도가능금융자산

연결회사는 금융자산 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평가합니다. 채무상품의 경우 상기 2.7.1에서 언급한 기준에 근거한 회계처리를 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의 경우, 그 공정가치가 원가로 부터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해 손상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취득원가와 현재 공정가치의 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누적손실 중 이전 기간에 이미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을 제외한 부분을 자본에서 재분류조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매도가능지분상품에 대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손상차손은 향후 당기손익으로 환입하지 아니합니다. 후속기간중 매도가능채무상품의 공정가치가 증가하고 그 증가가 손상차손을 인식한 사건과 객관적으로 관련된 경우에는 환입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8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계약 체결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손익의 인식 방법은 파생상품이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험회피대상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에 해당하는 파생상품 관련손익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파생상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확정계약의 공정가치에 대한 위험회피
(2) 현금흐름 위험회피 : 인식된 자산, 부채 또는 발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거래와 연관된 특정 위험에 대한 위험회피

연결회사는 거래 개시시점에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의 관계, 위험관리목적 및 다양한 위험회피거래전략에 대하여 문서화하고 있으며, 또한 위험회피거래에 사용된파생상품이 위험회피대상의 공정가치 또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상쇄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인지를 위험회피 개시시점과 이후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목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주석 19에서 공시하고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위험회피평가손익의 변동은 주석 21에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수단인 파생상품의 전체 공정가치는 위험회피대상의 잔여만기가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비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며, 12개월 이내인 경우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매매목적 파생상품은 유동자산(부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1) 공정가치 위험회피
공정가치 위험회피로 지정되었고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회피대상위험으로 인한 위험회피대상자산(부채)의 공정가치 변동과 함께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험회피대상의 장부금액 조정분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만기까지 상각하여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현금흐름 위험회피
현금흐름 위험회피로 지정되어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 중 효과적인 부분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비효과적인 부분은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즉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누적된 금액은 위험회피대상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예를 들어, 위험회피대상인 예상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한편, 위험회피대상인 예상거래에 따라 비금융자산(예를 들어, 재고자산 혹은 고정자산)을 인식하게 되는 경우 이전 기간에 자본으로 이연한 손익은 자본에서 제거하고 관련 자산의 최초 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연된 금액은 궁극적으로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매출원가로, 고정자산인 경우 감가상각비로 인식됩니다.

위험회피수단이 소멸하거나 매각된 경우 또는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평가손익은 자본에 인식하였다가 예상거래가 손익계산서에 인식될 때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거래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자본으로 인식한 누적손익을 즉시 기타영업외손익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된 재고자산 및 제공된 용역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수취할 금액입니다. 매출채권의 회수가 12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합니다. 매출채권은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0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이동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제품과 재공품의 원가는 원재료비,직접노무비 및 기타 직접원가와 정상조업도에 근거한 관련 제조간접비로 이루어지며, 차입원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의 추정 판매가격에서 적용 가능한 변동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2.11 매각예정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주로 계속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회수되고, 매각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계상됩니다.

2.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수선 및 유지비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그 외 자산의 감가상각액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추정내용연수	구분	추정내용연수
건물	25 ~ 50	공기구비품	5
구축물	25 ~ 50	차량운반구	5
기계장치	5 ~ 15	기타의유형자산	2 ~ 6

연결회사는 매 회계연도 말에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와 경제적 내용연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장부금액이 추정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경우자산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즉시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자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외수익(비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2.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을 취득 또는 건설하는 데 발생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14 무형자산

(1) 영업권
영업권은 주석 2.2.(1)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측정되며,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으로 인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은 매년 손상검사를 하고 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한 손상차손은 환입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처분으로 인한 처분손익 계산에는 매각되는 기업의 영업권 장부금액이 포함됩니다.

영업권은 손상검사 목적으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하고 있으며, 그 배분은 영업권이 발생한 사업결합으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식별된 현금창출단위나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대하여 이루어지며, 이는 영업부문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매년 또는 잠재적 손상을 나타내는 상황의 변화나 사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더 자주 실시됩니다. 영업권의 손상검사는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 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순공정가치 중높은 금액)과 비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즉시 비용으로 인식되며, 후속적으로 환입되지 않습니다.

(2) 상표권과 라이선스
개별적으로 취득한 상표권과 라이선스는 역사적 원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상표권과 라이선스는 취득일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표권과 라이선스는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으며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과 라이선스는 추정내용연수(4-20년) 동안 원가를 배분하기 위하여 정액법에 따라 상각하고 있습니다.

(3) 연구 및 개발
연구 지출액은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비용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 무형자산을 사용하기 위해 그 자산을 완성할 수 있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 무형자산을 완성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려는 기업의 의도
·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
· 무형자산이 미래경제적 효익을 창출하는 방법 증명 가능
· 무형자산의 개발을 완료하고 그것을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 등의 입수 가능성
·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자산 관련 지출의 신뢰성 있는 측정 가능

무형자산으로 자본화되는 직접 관련된 원가는 무형자산 개발을 위한 종업원급여 및 관련된 간접원가 중 적절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발관련 지출은 발생시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개발원가는 그 이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인식한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4) 회원권
회원권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2.15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투자부동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 또는 개발중인 부동산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 · 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 25~50년에 따라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처분 손익은 처분대가와 자산의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손익계산서의 기타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주석 12에서 공시된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시장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자산의 특성, 상태, 위치를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공인된 전문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평가 대상 투자부동산의 소재 지역에서 최근에 유사한 부동산을 평가한 경험이 있는 독립된 평가인이 공정가치평가를 수행하며, 이러한 평가금액에 근거하여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가 결정됩니다.

2.16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비한정내용연수를 가진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않고 매년 손상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각하는 자산의 경우는 매 보고기간말에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나타내는 환경의 변화나 사건이 있다면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산은 별도로 식별가능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가장 하위 수준의 집단(현금창출단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을 인식한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은 매 보고기간말에 손상차손의 환입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17 금융부채

(1)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연결회사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를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2)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연결회사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상 매입채무및기타채무, 장단기금융부채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중 보고기간말 현재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는 유동부채로, 이외의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됩니다.

2.18 매입채무

매입채무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공급자로부터 취득한 재고자산 및 제공받은 용역과 관련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입니다. 매입채무의 지급이 1년 이내에 예상되는 경우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매입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19 금융보증계약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특정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이후에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기타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한 상 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20 차입금

차입금은 최초에 공정가치에서 거래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인식하며, 후속적으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비용 차감 후 수취한 금액과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하여 차입기간 동안 손익계산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은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상 결제를 이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유동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21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회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래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충당부채를 인식하지 않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2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의 특정 항목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를 각각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서 직접 부가하거나 차감하여 인식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연결회사가 영업을 영위하고 과세대상수익을 창출하는 국가에서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법에 기초하여 계산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의존하는 경우 연결회사가 세무 보고를 위해 취한 입장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과세당국에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정의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 효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는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실현되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결제될 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고기간말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될 세율과 세법을 적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과 조인트벤처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회사가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동일한 또는 다른 과세대상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이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3 종업원급여

연결회사는 확정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해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고 미인식과거근무원가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급여가 지급될 통화로표시되고 관련 확정급여부채의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수리적손익은 발생한 기간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과거근무원가는 이연하여 가득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4 자본금

보통주와 상환의무 없는 우선주는 모두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가 회사의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직접거래원가를 포함하는 지급 대가는 그 보통주가 소각되거나 재발행 될 때까지 회사의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이 재발행되는 경우, 수취한 대가는 회사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자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2.25 수익인식

수익은 연결회사의 통상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재화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부가가치세, 반품, 리베이트 및 할인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표시하며, 내부거래를 제거한 후의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결회사의 활동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추정은 고객의 유형, 거래의유형 및 개별 거래조건 등의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재화의 판매
연결회사는 석유류 제품의 제조 및 도소매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판매에 따른 수익은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시점에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화의 인도는 재화가 특정 장소로 이전되고, 재화의 진부화와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며, 구매자가 판매 계약에 따라 재화의 수령을 승인하거나 그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연결회사가 재화의 수령 승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는 시점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2) 이자수익
이자수익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채권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채권금액의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감액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부분은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최초 유효이자율에 의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배당수익
배당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고객충성제도
연결회사는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면 향후 제품 구매 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보상을 부여하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여된 보상은 해당 보상을 부여한 매출거래('최초 매출') 중 별도의 식별가능 한 부분으로 회계처리 합니다. 이를 위하여 최초 매출과 관련하여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는 보상점수와 최초매출의 나머지 부분에 배분하며, 이때 보상점수에 배분할 대가는 보상점수 중 고객이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보상점수의 공정가치 즉, 보상점수와 교환되는 보상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측정합니다. 보상점수에 대한 매출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26 리스

리스는 리스제공자가 자산의 사용권을 일정기간 동안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이용자는 그 대가로 사용료를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계약입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자산의 공정가치와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 중 작은 금액을 리스기간개시일에 자본화하고 있습니다.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이 이전되지 않은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운용리스에서 리스지급액은 리스기간 동안 정액기준으로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7 배당금

배당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시점에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28 재무제표 승인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3년 3월 7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적 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이후의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에 조정을 미칠 수 있는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연결회사는 주석 2.14의 회계정책에 따라 매년 영업권의 손상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금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은 추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2) 유형자산 내용연수
회사는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추정내용연수와 관련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정은 예상되는 제품의 주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기술적 변화와 산업주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쟁자들의 행동에 따라 중요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영진은 기존의 추정내용연수보다 내용연수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포기되거나 매각된 비전략적 자산 및 기술적으로 진부화된 자산은 그 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장부에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3) 법인세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은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역시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연결회사의 영업활동으로 창출된 과세소득에 대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까지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미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효과를 최선의 추정과정을 거쳐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로 인식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미래 최종 법인세부담은 인식한 관련 자산 · 부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최종 세효과가 확정된 시점의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자산 · 부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주석 18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환경복구와 관련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5) 고객충성제도
회사는 고객충성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충성제도로 인하여 고객에게 부여된 보상에 대해서는 최초 매출과 구분하여 인식합니다. 이러한 보상에 배분할 대가는 과거 경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6) 확정급여부채
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많은 가정을 사용하는 보험수리적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순원가(이익)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가정은 할인율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의 변동은 확정급여부채의 장부금액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회사는 매년 말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율은 확정급여부채의 정산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의 추정 현금 유출액의 현재가치를 결정할 때 사용되어야 하는 이자율을 나타냅니다. 회사는 연금이 지급되는 통화로 표시되고 관련 연금부채의 기간과 유사한 만기를 가진 우량 회사채 이자율을 고려하여 적절한 할인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부채와 관련된 다른 주요한 가정들은 일부 현재의 시장 상황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주석 17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4.1 재무위험관리요소

연결회사는 여러 활동으로 인하여 시장위험(환위험, 공정가치 이자율 위험, 현금흐름이자율 위험 및 가격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 위험과 같은 다양한 금융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특정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4.1.1 시장위험

(1) 외환위험
연결회사는 국제적으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외환위험, 특히 주로 달러화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외환위험은 미래예상거래, 인식된 자산과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의 위험관리 정책은 외화자산, 부채에 대해서 발생하는 환율변동의 위험을 통화선도 등의 파생상품을 통해서 회피하는 것입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의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외화금융자산 및 외화금융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2012. 12. 31	USD	EUR	JPY	기타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6,708,060	-	-	-	**6,708,060**
매출채권	246,391,308	-	-	-	**246,391,308**
기타채권	2,415,366	-	-	-	**2,415,366**
소계	255,514,734	-	-	-	**255,514,734**
매입채무	(1,353,916,243)	(844,495)	-	-	**(1,354,760,738)**
기타채무	(2,460,631)	-	(24,779)	(2,060)	**(2,487,470)**
금융부채	(400,523,755)	-	-	-	**(400,523,755)**
소계	(1,756,900,629)	(844,495)	(24,779)	(2,060)	**(1,757,771,963)**

단위: 천 원

2011. 12. 31	USD	EUR	JPY	기타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26,989,018	-	-	57,231	**27,046,249**
매출채권	280,226,245	-	-	-	**280,226,245**
기타채권	10,173,614	-	-	225,494	**10,399,108**
소계	317,388,877	-	-	282,725	**317,671,602**
매입채무	(1,813,033,422)	(727,402)	-	-	**(1,813,760,824)**
기타채무	(1,787,982)	-	(489)	(318,400)	**(2,106,871)**
금융부채	(350,605,906)	-	-	-	**(350,605,906)**
소계	(2,165,427,310)	(727,402)	(489)	(318,400)	**(2,166,473,601)**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환율효과는 보고통화인 원화에 대한 다른 통화들의 변동효과 합계로 계산된 것입니다.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산에 대한 환율변동위험은 해당통화의 5% 절상 및 절하인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순효과에 파생상품으로 인한 헤지효과는 미반영되었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절상시	절하시	절상시	절하시
외화금융자산	12,775,737	(12,775,737)	15,883,580	(15,883,580)
외화금융부채	(87,888,598)	87,888,598	(108,323,656)	108,323,656
순효과	(75,112,861)	75,112,861	(92,440,076)	92,440,076

(2) 가격위험
연결회사는 연결재무상태표상 매도가능 또는 당기손익인식자산으로 분류되는 연결회사 보유 지분증권의 가격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관련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이 연결회사의 당기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분석은 다른 변수들은 일정하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은 주식 가격이 일정하게 30%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분석한 것입니다.

단위: 천 원

구분	세후 이익에 대한 영향	
	2012년	2011년
비상장주식	922,552	922,552

(3) 이자율위험
연결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은 장기 차입금에서 비롯됩니다. 변동 이자율로 발행된 차입금으로 인하여 연결회사는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 이자율위험의 일부는 변동이자부 현금성 자산으로부터의 이자율위험과 상쇄됩니다.

다양한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연결회사는 회사의 현금흐름 이자율 위험을 변동이자수취/고정이자지급스왑을 이용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자율 스왑은 변동이자부 차입금을 고정이자부 차입금으로 바꾸는 경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스왑계약에 따라 연결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특정 기간(주로 분기)마다, 합의된 원금에 따라 계산된 고정이자와 변동이자의 차이를 결제하게 됩니다.

2012년 12월 31일 현재, 다른 변수가 일정하고 원화 표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이 0.1% 상승 또는 하락할 경우, 증가 또는 감소한 변동이자부 장기차입금(유동성장기차입금 포함)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인하여 당 회계기간에 대한 포괄이익은 1,137,531천 원(전기: 1,208,952천 원)만큼 감소 또는 증가하였을 것입니다.

4.1.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연결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수취채권 및 확정계약을 포함한 도소매 거래처에 대한 신용위험뿐 아니라 현금및현금성자산, 파생금융상품 및 은행 및 금융기관 예치금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금융기관의 경우, 독립적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의 신용등급이 최소 A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도매거래처의 경우 독립적으로 신용평가를 받는다면 평가된 신용등급이 사용되며, 독립적인 신용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고객의 재무상태, 과거경험 등 기타 요소들을 고려하여 신용을 평가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위험 한도는 이사회가 정한 한도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적으로 결정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신용한도의 사용여부는 정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매거래처에 대한 매출은 현금 또는 주요 신용카드로 처리됩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부금액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현금성자산	107,237,385	68,025,66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248,654	1,380,379
단기금융자산	38,817,689	28,965,304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391,947,798	1,385,476,826
장기금융자산	1,523,500	2,023,50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6,888,545	126,602,212
합계	**1,686,663,571**	**1,612,473,881**

최대신용노출금액은 현금과 지분상품을 제외한 금융자산과 일치합니다.

(2)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각 지역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정도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대한민국	1,481,563,630	1,474,406,420
북미	-	244,268
아시아	192,849,191	127,622,997
유럽	12,002,096	8,819,817
합계	**1,686,414,917**	**1,611,093,502**

4.1.3 유동성 위험

현금흐름의 예측은 연결회사내의 개별 영업 종속회사들이 수행하고 연결회사의 자금팀이 취합합니다. 연결회사는 미사용 차입금한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영업 자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연결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연결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통화에 대한 제한과 같은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금융부채의 유동성위험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기

단위: 천 원

과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1)	잔존만기			
			6개월 이하	6개월에서 1년 이하	1년에서 3년 이하	3년 초과
단기금융부채	702,859,972	764,590,493	658,698,518	105,891,975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142,101	2,142,101	2,142,101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370,321,714	2,370,321,714	2,370,321,714	-	-	-
장기금융부채	2,311,734,550	2,659,084,705	-	-	1,110,747,285	1,548,337,42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44,122,475	11,122,475	-	-	11,122,47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5,940,814	6,372,709	-	-	4,169,173	2,203,536
금융보증계약	-	32,133,000	32,133,000	-	-	-

(*1) 지급예정 이자금액 포함, 현재가치할인차금 미포함입니다.

(2) 전기

단위: 천 원

과목	장부금액	계약상 현금흐름(*1)	잔존만기			
			6개월 이하	6개월에서 1년 이하	1년에서 3년 이하	3년 초과
단기금융부채	1,041,234,648	1,055,240,388	851,549,875	203,690,513	-	-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2,122,711	2,122,711	2,122,711	-	-	-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761,175,093	2,761,175,093	2,761,175,093	-	-	-
장기금융부채	1,856,628,838	2,293,124,731	52,706,224	53,083,359	923,721,877	1,263,613,27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1,780,045	11,780,045	-	-	11,780,045	-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4,953,277	5,432,042	-	-	3,262,989	2,169,053

(*1) 지급예정 이자금액 포함, 현재가치할인차금 미포함입니다.

4.2 자본위험관리

연결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본구조를 유지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연결회사는 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을 조정하고, 주주들에게 자본을 반환하며, 부채감소를 위한 신주 발행 및 자산 매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연결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총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회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부채	5,682,932,827	5,907,021,908
자본	2,761,570,410	2,591,474,609
부채비율	206%	228%

4.3 공정가치 측정

아래 표는 평가기법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을 분석합니다. 정의된 수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활성시장의(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수준 1)
– 직접적으로(예: 가격) 또는 간접적으로(예: 가격에서 도출되어) 관측가능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 단 수준 1에 포함된 공시가격은 제외함(수준 2)
– 관측가능한 시장자료에 기초하지 않은,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투입변수(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수준 3)

(1) 2012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248,654	-	**248,654**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2,142,101	-	**2,142,101**
파생상품부채	-	5,940,814	-	**5,940,814**

(2) 2011년 12월 31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자산과 부채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Level 1	Level 2	Level 3	합계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1,380,379	-	**1,380,379**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	2,122,711	-	**2,122,711**
파생상품부채	-	4,953,277	-	**4,953,277**

활성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 고시되는 시장가격에 기초하여 산정됩니다. 거래소, 판매자, 중개인, 산업집단, 평가기관 또는 감독기관을 통해 공시가격이 용이하게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하고, 그러한 가격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에서 정기적으로 발생한 실제 시장거래를 나타낸다면, 이를 활성시장으로 간주합니다.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공시되는 시장가격은 매입호가입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수준1에 포함됩니다. 수준1에 포함된 상품들은 대부분 단기매매금융상품 또는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된 KOSPI 주가지수, KOSDAQ 주가지수에 속한 상장된 지분상품으로 구성됩니다.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예: 장외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평가기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기법은 가능한 한 관측가능한 시장정보를 최대한 사용하고 기업특유정보를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해당 상품의 공정가치 측정에 요구되는 모든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하다면 해당 상품은 수준2에 포함됩니다.

만약 하나 이상의 유의적인 투입변수가 관측가능한 시장정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상품은 수준3에 포함됩니다.
금융상품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평가기법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유사한 상품의 공시시장가격 또는 딜러가격
– 이자율스왑의 공정가치는 관측가능한 수익율곡선에 따른 미래 추정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로 계산
– 선물환의 공정가치는 보고기간 말 현재의 선도환율을 사용하여 해당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측정
– 나머지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현금흐름의 할인기법 등의 기타 기법 사용

(3) 매도가능금융자산 중 원가로 측정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지분증권(비상장)	3,075,175	3,075,175

5. 영업부문

(1) 영업부문별 정보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립하는 경영진이 회사의 영업부문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진은 회사가 단 하나의 보고부문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연결회사 수익의 상세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재화의 판매	21,634,185,890	18,951,893,884
용역의 제공	66,239,008	64,998,356
합계	**21,700,424,898**	**19,016,892,24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3) 주요 고객 정보

연결회사 수익의 10%를 초과하는 주요 고객이 없습니다.

6. 범주별 금융상품

(1) 범주별 금융상품 금액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대여금 및 수취채권		
현금및현금성자산	107,473,025	68,512,945
단기금융자산	38,817,689	28,965,304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391,947,798	1,385,476,826
장기금융자산	1,523,500	2,023,500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46,888,545	126,602,212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파생금융상품	248,654	1,380,379
매도가능금융자산		
지분증권(비상장)	3,075,175	3,075,175
합계	**1,689,974,386**	**1,616,036,341**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파생금융상품	2,142,101	2,122,711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파생금융상품	5,940,814	4,953,277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단기금융부채	702,859,972	1,041,234,64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2,370,321,714	2,761,175,093
장기금융부채	2,311,734,550	1,856,628,83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44,122,475	11,780,045
합계	**5,437,121,626**	**5,677,894,612**

(2) 금융상품 범주별 순손익 구분

2012년 12월 31일 단위: 천 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 파생금융상품
이자수익	-	9,219,965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247,646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52,266,270	-	-	-	-
외화환산이익	-	738,385	-	46,354,871	-
외환차익	-	36,578,682	-	257,848,295	-
이자비용	-	-	-	(153,154,482)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	(2,141,093)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	(94,012,305)	-	-
외화환산손실	-	(1,956,730)	-	(29,571,649)	-
외환차손	-	(81,531,131)	-	(126,505,825)	-
대손상각비	-	(805,085)	-	-	-
기타의대손상각비	-	(16,712)	-	-	-

2011년 12월 31일 단위: 천 원

구분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위험회피 파생금융상품
이자수익	-	10,880,969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1,380,304	-	-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140,011,126	-	-	-	-
파생상품거래이익	-	-	-	-	2,420,460
외화환산이익	-	3,509,348	-	25,215,666	-
외환차익	-	114,822,589	-	215,370,720	-
대손충당금환입	-	652,065	-	-	-
이자비용	-	-	-	(87,025,028)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	-	(2,122,636)	-	-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	-	(113,987,194)	-	-
파생상품거래손실	-	-	-	-	(553,317)
외화환산손실	-	(1,008,010)	-	(32,835,851)	-
외환차손	-	(104,653,061)	-	(230,615,219)	-
대손상각비	-	(105,548)	-	-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7. 사용제한금융상품

단위: 천 원

구분	내용	2012. 12. 31	2011. 12. 31
단기금융자산	정기예금	4,974,353	-
장기금융자산	당좌개설보증금	23,500	23,500
합계		**4,997,853**	**23,500**

8. 매도가능금융자산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취득원가	장부가액	장부가액
지분증권(비상장)(*)	3,111,320	3,075,175	3,075,175

(*)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9.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1)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외상매출금	1,183,580,656	1,225,151,608
대손충당금-외상매출금	(1,515,783)	(845,230)
미수금	208,420,270	159,851,409
대손충당금-미수금	-	-
미수수익	737,765	761,671
대손충당금-미수수익	-	-
보증예치금	724,890	557,368
대손충당금-보증예치금	-	-
합계	**1,391,947,798**	**1,385,476,826**

(2)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연령분석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연체되지않은채권	1,347,377,236	1,342,586,387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않은채권(*1)		
6개월이내	43,076,928	39,263,408
6개월초과	256,798	2,060,942
손상채권(*2)		
1년이내	1,312,256	211,738
1년초과	1,440,363	2,199,580
합계	**1,393,463,581**	**1,386,322,055**

(*1) 연체되었으나 손상되지 않은 채권은 일시적으로 연체한 채권입니다.
(*2)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손상채권과 관련하여 설정된 충당금은 1,516백만 원(전기: 845백만 원)입니다. 손상채권 중 회수가능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하고있습니다.

(3)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기초금액	845,230	1,738,707
손상된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	938,718	105,548
제각 등	(134,532)	(346,960)
미사용금액 환입	(133,633)	(652,065)
보고기간 말 금액	1,515,783	845,230

(4)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채권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장기대여금	103,747,571	94,777,161
보증금	43,140,974	31,825,051
합계	146,888,545	126,602,21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10. 재고자산

(1) 재고자산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취득원가	평가충당금	장부금액
상품	13,367	-	13,367	20,103	-	20,103
제품	543,311,387	(887,749)	542,423,638	509,287,945	(1,340,319)	507,947,626
재공품	233,302,927	-	233,302,927	220,673,118	-	220,673,118
원재료	517,994,910	-	517,994,910	479,203,238	-	479,203,238
저장품	24,709,697	-	24,709,697	12,459,286	-	12,459,286
미착품	770,548,196	-	770,548,196	1,084,006,498	-	1,084,006,498
합계	**2,089,880,484**	**(887,749)**	**2,088,992,735**	**2,305,650,188**	**(1,340,319)**	**2,304,309,869**

(2)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매출원가)	19,127,284,565	16,111,774,472
재고자산평가손실	-	1,315,239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액	452,570	-

11. 조인트벤처 및 관계회사투자

(1) 조인트벤처 및 관계회사 주식의 내역

단위: 천 원

회사명	소재국	지분율(%)	2012. 12. 31		2011. 12. 31	
			취득원가	평가액	취득원가	평가액
조인트벤처						
현대코스모(주)	대한민국	50	291,100,000	152,561,280	178,500,000	25,580,466
관계회사						
현대자원개발(주)(*1)	대한민국	15	7,500,000	7,432,345	7,500,000	7,403,937
합계			**298,600,000**	**159,993,625**	**186,000,000**	**32,984,403**

(*1) 지분율은 20% 미만이지만, 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지분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변동 내역

2012년 단위: 천 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기말
현대코스모(주)	25,580,466	112,600,000	14,902,090	(521,276)	152,561,280
현대자원개발(주)	7,403,937	-	36,733	(8,325)	7,432,345
합계	**32,984,403**	**112,600,000**	**14,938,823**	**(529,601)**	**159,993,625**

2011년 단위: 천 원

회사명	기초	취득	지분법손익	지분법 자본변동	기말
현대코스모(주)	21,196,567	-	5,691,176	(1,307,277)	25,580,466
현대자원개발(주)	-	7,500,000	(96,063)	-	7,403,937
합계	**21,196,567**	**7,500,000**	**5,595,113**	**(1,307,277)**	**32,984,403**

(3) 미실현손익의 제거내역

2012년 단위: 천 원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미실현손실 (이익)	발생액	실현액	기말미실현손실 (이익)
현대코스모(주)	유형자산 매각	(116,679,899)	-	1,087,505	(115,592,394)
	무형자산 매각	(235,398)	-	-	(235,398)
	재고자산 판매	(1,995,691)	(3,621,645)	1,995,691	(3,621,645)
합계		**(118,910,988)**	**(3,621,645)**	**3,083,196**	**(119,449,437)**

2011년 단위: 천 원

회사명	거래내역	기초미실현손실 (이익)	발생액	실현액	기말미실현손실 (이익)
현대코스모(주)	유형자산 매각	(117,767,404)	-	1,087,505	(116,679,899)
	무형자산 매각	(235,398)	-	-	(235,398)
	재고자산 판매	(951,151)	(1,995,691)	951,151	(1,995,691)
합계		**(118,953,953)**	**(1,995,691)**	**2,038,656**	**(118,910,98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4) 당기말 피투자회사 요약 재무정보

단위: 천 원

회사명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당기손익
현대코스모(주)	1,336,298,594	792,277,160	2,102,156,767	30,881,078
현대자원개발(주)	49,901,071	352,109	2,748,912	244,886
합계	**1,386,199,665**	**792,629,269**	**2,104,905,679**	**31,125,964**

12. 투자부동산

(1) 투자부동산의 주요 변동

단위: 천 원

	2012년	2011년
취득원가	26,634,006	26,634,006
기말 순장부금액	26,634,006	26,634,006

(2) 투자부동산 공정가치

단위: 천 원

	2012. 12. 31	2011. 12. 31
토지	26,634,006	26,634,006

회사는 2010년 재평가를 수행후 2011년 공시지가 변동율을 고려하여 시가상승분을 계산한 결과 시가변동액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3년주기로 외부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 투자부동산 관련손익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임대수익	330,000	270,032
운영비용(*1)		
제세공과금 등	356,913	347,616

(*1) 임대수익이 발생한 투자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용입니다.

13.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주요 변동 내역

2012년 단위: 천 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	합계
기초취득가액	963,016,854	275,408,426	954,144,845	2,610,830,602	13,511,744	132,868,332	102,702,258	82,737,809	5,135,220,870
기초상각누계액	-	(48,131,710)	(308,619,523)	(262,635,890)	(11,103,629)	(82,844,639)	-	(64,235,476)	(777,570,867)
기초장부가액	963,016,854	227,276,716	645,525,322	2,348,194,712	2,408,115	50,023,693	102,702,258	18,502,333	4,357,650,003
취득	2,024,479	393,687	790,565	1,566,754	1,427	11,191,998	216,420,585	-	232,389,495
처분	(20,283,189)	(4,150,034)	(1,071,568)	(2,604,004)	(14)	(1,421,318)	-	-	(29,530,127)
대체 등	6,147,587	16,254,618	51,464,337	89,003,458	151,328	3,829,639	(170,213,810)	312,071	(3,050,772)
감가상각비	-	(6,925,549)	(27,527,324)	(187,137,548)	(732,666)	(17,314,646)	-	(8,156,141)	(247,793,874)
환산차이	-	-	-	-	-	(4,104)	(834,948)	-	(839,052)
기말취득가액	950,905,731	285,631,241	1,003,292,480	2,698,286,770	13,270,161	142,310,397	148,074,085	82,998,404	5,324,769,269
기말상각누계액	-	(52,781,803)	(334,111,148)	(449,263,398)	(11,441,971)	(96,005,135)	-	(72,340,141)	(1,015,943,596)
기말장부금액	950,905,731	232,849,438	669,181,332	2,249,023,372	1,828,190	46,305,262	148,074,085	10,658,263	4,308,825,673

2011년 단위: 천 원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건설중인자산	기타유형자산	합계
기초취득가액	909,661,765	155,574,990	689,081,761	486,719,636	13,213,581	128,900,888	2,069,077,778	72,666,902	4,524,897,301
기초상각누계액	-	(44,724,106)	(290,967,017)	(96,771,539)	(10,579,630)	(81,994,871)	-	(64,479,702)	(589,516,865)
기초장부가액	909,661,765	110,850,884	398,114,744	389,948,097	2,633,951	46,906,017	2,069,077,778	8,187,200	3,935,380,436
취득	224,704	1,675,059	4,293,345	45,791,041	190,155	7,096,576	619,231,209	-	678,502,089
처분	(18,727,380)	(4,465,002)	(2,203,385)	(930,984)	(351,126)	(521,082)	-	(2,555)	(27,201,514)
대체 등	71,857,765	124,657,613	269,794,035	2,079,577,513	898,746	12,841,624	(2,585,625,904)	18,604,698	(7,393,910)
감가상각비	-	(5,441,838)	(24,473,417)	(166,190,955)	(963,611)	(16,299,623)	-	(8,287,010)	(221,656,454)
환산차이	-	-	-	-	-	181	19,175	-	19,356
기말취득가액	963,016,854	275,408,426	954,144,845	2,610,830,602	13,511,744	132,868,332	102,702,258	82,737,809	5,135,220,870
기말상각누계액	-	(48,131,710)	(308,619,523)	(262,635,890)	(11,103,629)	(82,844,639)	-	(64,235,476)	(777,570,867)
기말장부금액	963,016,854	227,276,716	645,525,322	2,348,194,712	2,408,115	50,023,693	102,702,258	18,502,333	4,357,650,003

(2) 사채, 장기 및 단기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

단위: 천 원

담보제공처	담보제공자산	채권최고액
산업은행 외 대주단	토지 등	1,440,000,00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14. 무형자산

(1) 무형자산의 주요 변동 내역

2012년 단위: 천 원

구분	영업권	개발비	회원권	기타무형자산	합계
기초장부가액	56,629,475	3,186,978	12,224,288	10,485,519	**82,526,260**
취득	-	-	1,233,242	2,565	**1,235,807**
처분	-	-	(1,486,703)	-	**(1,486,703)**
상각비	-	(982,571)	-	(1,663,280)	**(2,645,851)**
대체 등	-	1,046,690	490,000	1,514,034	**3,050,724**
환산차이	-	-	(12,798)	(95)	**(12,893)**
기말장부가액	56,629,475	3,251,097	12,448,029	10,338,743	**82,667,344**

2011년 단위: 천 원

구분	영업권	개발비	회원권	기타무형자산	합계
기초장부가액	56,629,475	1,952,686	10,307,651	10,850,113	**79,739,925**
취득	-	-	5,581,675	-	**5,581,675**
처분	-	-	(3,667,152)	-	**(3,667,152)**
상각비	-	(1,275,437)	-	(1,634,994)	**(2,910,431)**
대체 등	-	2,509,729	-	1,270,400	**3,780,129**
환산차이	-	-	2,114	-	**2,114**
기말장부가액	56,629,475	3,186,978	12,224,288	10,485,519	**82,526,260**

14-1. 영업권의 손상평가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의 영업권은 과거 합병시 발생한 영업권입니다. 영업권은 회사의 경영진이 영업권을 관리하는 단위인 현금창출단위집단으로 배부되었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영업권 배분금액
영업권	56,629,475

회사는 매년 영업권에 대한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금흐름창출단위집단의 회수가능가액은 사용가치 계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사용가치의 계산은 경영진이 승인한 향후 5년치의 경영계획에 근거하여 세전현금흐름추정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동 기간에 대하여 사용된 매출물량 성장률과 이를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영구성장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 성장률은 현금창출단위가 속한 산업의 장기평균성장률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구현금흐름의 산출에는 일정 성장율 가정이 사용되었습니다. 사용가치 계산에 사용된 주요 가정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가정치	내용
매출물량대비 영업이익율	1.81%
매출물량 성장율(*1)	4.09%
영구성장율(*2)	3.31%
세전할인율(*3)	11.43%

(*1) 향후 5년간 현금흐름을 예측치를 산정하기 위한 가중평균 매출물량 성장율로 과거 성장치를 기초로 산정됨
(*2) 5년이후 예상되는 산업보고서의 수치와 일관된 성장율
(*3) 예상현금흐름에 적용된 세전할인율

회사는 매출물량 성장율을 과거의 실적과 시장개발에 대한 기대수준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된 성장율은 산업보고서에 포함된 예측치와 일관된 것입니다.

15.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유동:		
매입채무	1,839,694,367	2,136,031,013
미지급금	509,588,542	602,121,614
미지급비용	21,038,805	23,022,466
소계	2,370,321,714	2,761,175,093
비유동:		
장기미지급금	33,000,000	-
장기보증예수금	11,122,475	11,780,045
소계	44,122,475	11,780,045
합계	2,414,444,189	2,772,955,13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16. 장, 단기 금융부채

(1) 단기금융부채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단기차입금	400,523,755	590,605,906
유동성장기차입금	152,359,500	847,000
유동성사채	149,976,717	449,781,742
합계	**702,859,972**	**1,041,234,648**

(2) 장기금융부채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장기차입금	1,065,171,180	1,208,105,000
사채	1,246,563,370	648,523,838
합계	**2,311,734,550**	**1,856,628,838**

(3) 단기차입금의 내역

단위: 천 원

계정과목	내역	차입처	연이자율(%)	2012. 12. 31	2011. 12. 31
원화단기차입금	기업어음	우리투자증권 외	-	-	240,000,000
외화단기차입금	Banker's USANCE	우리은행 외	0.66%~1.03%	400,523,755	350,605,906
합계				**400,523,755**	**590,605,906**

(4) 장기차입금의 내역

단위: 천 원

계정과목	내역	차입처	연이자율(%)	2012. 12. 31	2011. 12. 31
원화장기차입금	에너지합리화	한국산업은행	1.75%	5,419,000	6,266,000
원화장기차입금	신디케이트론	한국산업은행 외	4.80%	1,200,000,000	1,200,000,000
원화장기차입금	환경개선자금	한국산업은행	3.04%	2,686,000	2,686,000
외화장기차입금	선박건조대금	수협은행	Libor(3m)+4.4%	9,425,680	-
소계				1,217,530,680	1,208,952,000
차감 : 유동성 대체				(152,359,500)	(847,000)
합계				**1,065,171,180**	**1,208,105,000**

(5) 사채의 내역

단위: 천 원

종류	발행일	만기일	연이자율(%)	2012. 12. 31	2011. 12. 31
제 98회 무보증사채	2007.02.02	2014.02.02	5.44%	99,923,780	99,853,423
제 99회 무보증사채	2007.03.27	2012.03.27	5.23%	-	99,983,883
제 101회 무보증사채	2008.03.20	2013.03.20	6.05%	149,976,716	149,837,017
제 102회 무보증사채	2009.01.22	2012.01.22	7.65%	-	150,000,000
제 103회 무보증사채	2009.07.03	2014.07.03	6.80%	99,860,950	99,768,250
제 104회 무보증사채	2009.09.30	2012.09.30	5.79%	-	99,905,933
제 105회 무보증사채	2010.06.28	2015.06.28	5.75%	199,568,093	199,389,373
제 106회 무보증사채	2011.04.14	2014.04.14	4.36%	99,819,875	99,675,775
제 107회 무보증사채	2011.10.25	2012.10.25	3.92%	-	99,891,926
제 108회 무보증사채	2012.01.25	2015.01.25	3.98%	149,558,467	-
제 109회 무보증사채	2012.03.27	2015.03.27	4.08%	99,679,117	-
제 110회 무보증사채	2012.07.20	2017.07.20	3.52%	298,908,660	-
제 111-1회 무보증사채	2012.10.23	2016.10.23	3.24%	99,617,125	-
제 111-2회 무보증사채	2012.10.23	2019.10.23	3.52%	99,627,304	-
소계				1,396,540,087	1,098,305,580
차감: 유동성 대체				(149,976,717)	(449,781,742)
차감계				**1,246,563,370**	**648,523,838**

17. 확정급여부채

(1)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금액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129,685,200	101,383,248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2,643,032)	(89,714,715)
국민연금전환금	(570,285)	(639,347)
재무상태표 상 부채	16,471,883	11,029,186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 확정급여채무의 변동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기초금액	101,383,248	90,439,014
당기근무원가	17,526,054	11,396,667
이자원가	4,466,164	4,947,945
청산관련 손익	-	(4,706,008)
보험수리적손익(법인세차감전)	15,464,754	53,677,188
퇴직급여 지급액	(9,466,627)	(5,025,787)
청산된 부채	-	(48,750,949)
전입, 전출로 인한 효과	311,607	(594,822)
기말금액	129,685,200	101,383,248

(3) 당기 및 전기 중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변동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기초금액	89,714,715	70,329,820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3,142,507	2,988,367
사용자의 기여금	27,610,260	42,979,239
보험수리적손익(법인세차감전)	604,623	(607,357)
급여지급액	(8,429,073)	(25,975,354)
기말금액	112,643,032	89,714,715

(4) 손익계산서에 반영된 금액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당기근무원가	17,526,054	11,396,667
이자원가	4,466,164	4,947,945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3,142,507)	(2,988,367)
축소,청산으로 인한 손익	-	(4,706,008)
종업원 급여에 포함된 총 비용	18,849,711	8,650,237
매출원가	12,049,929	1,377,602
건설중인자산 대체	1,354	3,574,134
판매비와관리비	6,798,428	3,698,501
합계	**18,849,711**	**8,650,237**

(5)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사외적립자산의 기대수익	3,142,507	2,988,367
보험수리적이익(손실)	604,623	(607,357)
사외적립자산의 실제수익	3,747,130	2,381,010

(6) 보험수리적손익 누계액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인식한 누적 보험수리적(손실)이익	(83,066,722)	(68,206,590)

(7) 사외적립자산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예금 및 유동성자산	68,963,785	52,885,585
채권 및 유가증권	42,503,465	35,575,043
퇴직보험	1,175,782	1,254,087
합계	**112,643,032**	**89,714,715**

(8) 당초 추정치와 실제치의 차이 조정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2010. 12. 31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129,685,200	101,383,248	90,439,014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	112,643,032	89,714,715	70,329,820
제도의 과소적립액(초과적립액)	17,042,168	11,668,533	20,109,194
확정급여채무에 대한 경험적 조정	1,826,961	42,847,821	4,488,530
사외적립자산에 대한 경험적 조정	604,623	(607,357)	(1,141,00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9)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사용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기말 할인율	3.93%	4.80%
기초 사외적립자산 기대수익률	3.28%	4.01%
미래임금인상률(직군별로 적용)	4.13% ~ 5.18%	3.39% ~ 5.45%
사망율(남성, 45세인 경우)	0.29%	0.29%

퇴직률은 회사의 직군별로 산출된 경험퇴직률을 기초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사망률의 경우 통계청이 발표한 사망률을 전기와 당기에 공통으로 적용하였습니다.

18. 충당부채, 우발채무 및 주요 약정사항

(1) 충당부채

당기와 전기 중 주요 충당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2년 단위: 천 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당기말
환경복구충당부채	24,394,644	-	(9,674,755)	14,719,889

2011년 단위: 천 원

구분	기초	증가	감소	전기말
환경복구충당부채	10,425,400	15,739,000	(1,769,756)	24,394,644

(2) 우발채무

회사의 계류 중인 소송사건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소송사건내역	소송금액	소송결과 및 예상
사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국방부손해배상청구소송(*1)	1,670억 원	– 대법원 선고(파기환송): 공탁금 회수 (약350억 원)(*2) – 파기환송심(서울고법) 계류 중
	LPG 가격담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102억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 소송결과 예측불가
	한국쉘석유 토양오염 손해배상청구소송	148억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 소송결과 예측불가
회사가 원고로 계류 중인 소송사건	소매경질유 과징금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1)	93억 원	– 대법원 계류 중(과징금 93억 원 기납부)
	LPG 가격 담합 과징금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1)	263억 원	– 대법원 계류 중(과징금 263억 원 기납부)
	주유소 원적담합 과징금납부명령 및 시정명령 취소소송(*1)	754억 원	– 서울고등법원 계류 중(과징금 754억 원 기납부)
	석유수입부과금환급금환수처분취소소송(*1)	97억 원	– 수원지방법원 계류 중(과징금 97억 원 기납부)
	방위사업청 유류대금지급청구소송(*3)	93억 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계류 중 – 소송결과 예측불가

(*1) 전기 이전에 손실로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2) 4개 정유사를 상대로 총 소송금액 1,670억 원 중 회사의 공탁금 350억 원을 전기 중 회수하여 예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 방위사업청이 2012년 10월 중 부당이득금 반환의 명목으로 상계한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약정사항

1.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외환은행 등과 50,000백만 원(전기말: 50,000백만 원)을 한도로 당좌차월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신한은행과 50,000백만 원(전기말: 50,000백만 원)의 할인어음 약정을 맺고 있습니다.

2.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외환은행 등과 4,010백만 불(전기말: 2,670백만 불)의 수입신용장 개설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614백만 불을 실행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말 현재 회사는 하나은행과 400,000백만 원을 한도로 팩토링 약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이 중 26,183백만 원을 실행하였습니다.

4. 회사는 종속회사가 건조 중인 선박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 용선사와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5. 회사는 종속회사 현대오일터미널(주)의 비지배주주 주식에 대해서 비지배주주와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약정에 따르면 비지배주주는 2017년 6월부터 1년간 해당 주식의 매입을 청구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제공한 지급보증

단위: 천USD

보증인	내용	금액	제공처
현대오일뱅크(주)	차입금 지급보증	30,000	현대코스모(주)

19. 파생상품

회사는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원유 등에 대해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제품선도 거래 및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선도거래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모든 파생상품의 공정가액은 거래은행이 제공한 평가내역을 이용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1) 위험회피목적 또는 매매목적의 파생상품 내역

단위: 천 원

거래목적	계약종류	계약내용	계약단위	계약잔액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스왑	차입금 변동금리 위험회피	KRW	80,000,000

(2) 파생상품 자산, 부채의 내역

2012년 12월 31일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종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스왑	-	-	5,940,814
매매목적	통화선도	27,508	1,266,691	-
	제품선도	221,146	875,410	-
합계		**248,654**	**2,142,101**	**5,940,814**

2011년 12월 31일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종류	당기손익인식 금융자산	당기손익인식 금융부채	파생상품부채
현금흐름위험회피	이자율스왑	-	-	4,953,277
매매목적	통화선도	1,002,097	1,854,568	-
	제품선도	378,282	268,143	-
합계		**1,380,379**	**2,122,711**	**4,953,277**

(3) 당기와 전기 중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평가손익 및 거래손익의 내역

2012년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종류	파생상품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비용	
		당기손익인식 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 평가이익	당기손익인식 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 평가손실
매매목적	통화선도	49,546,519	26,500	88,965,336	1,265,683
	제품선도	2,719,751	221,146	5,046,969	875,410
합계		**52,266,270**	**247,646**	**94,012,305**	**2,141,093**

2011년

단위: 천 원

구분	계약종류	파생상품관련수익			파생상품관련비용		
		파생상품 거래이익	당기손익인식 처분이익	당기손익인식 평가이익	파생상품 거래손실	당기손익인식 처분손실	당기손익인식 평가손실
매매목적	통화선도	2,420,460	86,297,043	1,002,022	(553,317)	(109,688,928)	(1,854,494)
	제품선도	-	53,714,083	378,282	-	(4,298,266)	(268,142)
합계		**2,420,460**	**140,011,126**	**1,380,304**	**(553,317)**	**(113,987,194)**	**(2,122,636)**

20. 자본금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500,000,000주이고, 발행한 주식수는 보통주식 245,082,422주로 1주당 액면금액은 5,000원입니다.

21.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구성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평가손익	(4,503,137)	(3,754,584)
해외사업환산손익	(588,362)	23,111
지분법자본변동	(4,318,796)	(3,789,195)
합계	**(9,410,295)**	**(7,520,668)**

(2)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증감내역

2012년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세차감전	누적법인세금액	법인세차감후
기초	(9,641,882)	2,121,214	(7,520,668)
증감	(2,250,131)	360,504	(1,889,627)
기말	(11,892,013)	2,481,718	(9,410,295)

2011년

단위: 천 원

구분	법인세차감전	누적법인세금액	법인세차감후
기초	7,691,931	(1,692,225)	5,999,706
증감	(17,333,813)	3,813,439	(13,520,374)
기말	(9,641,882)	2,121,214	(7,520,66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2. 이익잉여금

(1) 이익잉여금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법정적립금		
이익준비금(*1)	25,058,572	25,058,572
미처분이익잉여금	1,508,855,814	1,348,524,595
합계	**1,533,914,386**	**1,373,583,167**

(*1) 회사는 상법상의 규정에 따라 납입자본의 50%에 달할 때까지 매 결산기마다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이익준비금은 현금으로 배당할 수 없으나 자본전입 또는 결손보전을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23. 판매비와관리비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인건비	90,045,869	79,526,820
수송비	77,359,993	76,211,191
광고선전비	12,958,477	14,882,544
용역비	38,372,602	49,907,669
판매촉진비	10,298,477	8,596,971
지급수수료	23,500,210	23,015,075
지급임차료	19,901,466	14,354,342
감가상각비	23,565,557	24,884,966
대손상각비	805,085	105,548
기타	60,634,333	44,260,463
합계	**357,442,069**	**335,745,589**

24. 비용의 성격별 분류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재고자산의변동	215,317,134	(365,222,354)
재고자산매입액	18,911,967,431	16,476,996,826
감가상각비	247,793,874	221,656,454
무형자산상각비	2,645,851	2,910,431
인건비	189,593,025	162,147,453
기타	1,825,895,611	1,923,448,381
합계	**21,393,212,926**	**18,421,937,191**

비용의 성격별 분류의 합계는 포괄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의 합계와 동일합니다.

25. 금융수익 및 금융비용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금융수익:		
이자수익	9,219,965	10,880,969
외화환산이익	9,131,170	3,319,580
외환차익	87,621,547	61,919,382
합계	**105,972,682**	**76,119,931**
금융비용:		
이자비용	153,154,482	87,025,028
외화환산손실	-	1,013,109
외환차손	33,478,814	69,691,306
합계	**186,633,296**	**157,729,443**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6. 기타영업외수익 및 비용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기타영업외수익:		
파생상품거래이익	-	2,420,460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이익	52,266,270	140,011,126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이익	247,646	1,380,304
외화환산이익	37,962,086	25,405,434
외환차익	206,805,430	268,273,927
유형자산처분이익	2,344,736	4,499,860
무형자산처분이익	-	11,561
대손충당금환입	-	652,065
잡이익	11,007,894	15,793,258
합계	**310,634,062**	**458,447,995**
기타영업외비용:		
파생상품거래손실	-	553,317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처분손실	94,012,305	113,987,194
당기손익인식금융상품평가손실	2,141,093	2,122,636
외화환산손실	31,528,379	32,830,753
외환차손	174,558,142	265,576,974
유형자산처분손실	5,146,853	5,527,260
무형자산처분손실	121,113	612,278
기타의대손상각비	16,712	-
기부금	19,961,038	28,084,048
잡손실	1,934,842	78,041,858
합계	**329,420,477**	**527,336,318**

27. 법인세비용

(1) 법인세비용의 구성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당기 법인세 부담액	29,941,597	70,700,762
법인세 환급액	-	(3,672,920)
일시적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281,501	(6,559,375)
이월결손금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94,361)	-
이월세액공제로 인한 이연법인세 변동액	17,452,788	6,503,311
자본에 직접 반영된 법인세비용	3,835,136	16,738,206
법인세비용	51,316,661	83,709,984

(2) 유효법인세율의 조정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당기순이익	171,387,105	366,342,343
법인세비용	51,316,661	83,709,984
법인세차감전 순이익	222,703,766	450,052,327
자국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49,806,495	98,987,512
비과세수익	(143,764)	(5,575,776)
비공제비용	465,253	22,540,854
세액공제	1,189,108	(27,392,622)
세율변동효과 등	-	(3,597,925)
기타	(431)	(1,252,059)
합계	**51,316,661**	**83,709,984**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3) 일시적차이 및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증감내역

2012년

단위: 천 원

계정과목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18,990,505	(3,264,033)	15,726,472	3,805,806
건설중인자산	(1,072,622)	860,509	(212,113)	(51,331)
우발채무	32,733,896	-	32,733,896	7,921,603
기부금	1,036,000	1,433,000	2,469,000	597,498
대손금	12,816,645	(3,609,523)	9,207,122	2,228,123
금융자산손상	436,145	-	436,145	105,547
미수수익	(761,671)	46,887	(714,784)	(172,278)
충당부채	85,375,504	(28,363,280)	57,012,224	13,796,958
재고자산평가손실	5,978,047	(797,560)	5,180,487	1,253,678
유형자산처분손익	1,924,471	(144,651)	1,779,820	430,716
퇴직급여충당부채	20,663,068	4,593,853	25,256,921	6,112,175
퇴직연금운영자산	(88,869,659)	(14,891,581)	(103,761,240)	(25,110,220)
파생상품평가손익	4,843,137	1,751,942	6,595,079	1,596,009
판매장려금	2,021,277	(443,006)	1,578,271	381,942
자산재평가	(495,074,677)	29,137,945	(465,936,732)	(112,756,689)
압축기장충당금	(97,798,225)	-	(97,798,225)	(23,667,170)
보험수리적손익	68,206,590	14,860,132	83,066,722	20,102,147
미지급비용	8,146,557	(2,338,949)	5,807,608	1,405,681
이월결손금	-	-	-	194,361
이월세액공제	-	-	-	39,283,184
합계	**(420,405,012)**	**(1,168,315)**	**(421,573,327)**	**(62,542,260)**

2011년

단위: 천 원

계정과목	일시적차이			이연법인세자산(부채)
	기초잔액	증감	기말잔액	
감가상각비	20,698,042	(1,707,537)	18,990,505	4,595,702
건설중인자산	17,628,015	(18,700,637)	(1,072,622)	(259,575)
우발채무	32,233,896	500,000	32,733,896	7,921,603
기부금	-	1,036,000	1,036,000	250,712
대손금	14,425,346	(1,608,701)	12,816,645	3,101,628
금융자산손상	436,145	-	436,145	105,547
미수수익	(1,735,399)	973,728	(761,671)	(184,324)
미지급성과급	45,954,594	(45,954,594)	-	-
충당부채	71,822,181	13,553,323	85,375,504	20,660,872
재고자산평가손실	(8,052,673)	14,030,720	5,978,047	1,446,687
외화환산평가손익	953,512	(953,512)	-	-
유형자산처분손익	2,074,595	(150,124)	1,924,471	465,722
퇴직급여충당부채	44,467,189	(23,804,121)	20,663,068	5,000,463
퇴직연금운영자산	(70,329,820)	(18,539,839)	(88,869,659)	(21,506,457)
파생상품평가손익	16,650,842	(11,807,705)	4,843,137	1,172,039
판매장려금	1,396,805	624,472	2,021,277	489,149
자산재평가	(520,566,962)	25,492,285	(495,074,677)	(119,808,072)
압축기장충당금	(97,798,225)	-	(97,798,225)	(23,667,170)
보험수리적손익	13,922,045	54,284,545	68,206,590	16,505,995
미지급비용	6,234,979	1,911,578	8,146,557	1,971,467
이월세액공제	-	-	-	56,735,971
합계	**(409,584,893)**	**(10,820,119)**	**(420,405,012)**	**(45,002,041)**

(4) 자본에 직접 부가되거나 차감된 법인세부담액과 이연법인세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파생상품평가이익	1,437,677	1,198,693
보험수리적손익	20,102,147	16,505,995
합계	**21,539,824**	**17,704,688**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28. 주당손익

(1) 주당손익의 계산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지배기업소유주지분순이익	171,595,199	366,342,343
보통주 당기순이익	171,595,199	366,342,343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주)	245,082,422	245,082,422
주당순이익(손실)(단위: 원)	700	1,495

회사는 당기와 전기 중 희석 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보통주 청구가능증권)가 없으므로 기본주당순이익과 희석주당순이익이 일치합니다.

29.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

(1) 당기와 전기 중의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조정:		
퇴직급여	18,848,357	5,076,103
감가상각비	247,793,874	221,656,454
무형자산상각비	2,645,851	2,910,431
재고자산평가손실	-	1,315,239
대손상각비	805,085	105,548
기타의대손상각비	16,712	-
이자비용	153,154,482	87,025,028
외화환산손실	31,528,379	33,843,862
파생상품거래손실	-	553,317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손실	94,012,305	113,987,194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손실	2,141,093	2,122,636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452,570)	-
유형자산처분손실	5,146,853	5,527,260
무형자산처분손실	121,113	612,278
법인세비용	51,316,661	83,709,984
외화환산이익	(47,093,256)	(28,725,014)
파생상품거래이익	-	(2,420,46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처분이익	(52,266,270)	(140,011,126)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평가이익	(247,646)	(1,380,304)
지분법이익	(14,938,823)	(5,595,113)
기타의대손충당 금환입	-	(652,065)
유형자산처분이익	(2,344,736)	(4,499,860)
무형자산처분이익	-	(11,561)
이자수익	(9,219,965)	(10,880,969)
소계	**480,967,499**	**364,268,862**
영업활동관련 자산,부채의 변동: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2,488,367)	27,291,393
매출채권	25,463,743	(217,672,059)
기타채권	(48,753,170)	(65,394,546)
재고자산	215,769,750	(690,394,965)
기타유동자산	(8,918,822)	(21,537,746)
매입채무	(276,177,780)	781,996,510
기타채무	(94,796,526)	86,295,599
기타유동부채	22,457,970	23,412,918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636,471)	(486,857)
확정급여부채	(28,265,792)	(70,957,825)
장기충당부채	(9,674,755)	13,969,244
이연수익	(16,169,948)	1,729,078
소계	**(262,190,168)**	**(131,749,256)**

(2)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 거래의 내역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2011년
건설중인자산 본계정 대체	170,213,810	2,585,625,904
사채의 유동성분류	150,000,000	449,781,742
차입금의 유동성분류	152,359,500	847,00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49 기 2012년 12월 31일 현재
제 48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30.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 지배 · 종속회사간의 특수관계
당분기말 현재 회사의 지배회사 및 종속 · 관계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 원

구분	회사명	비고
최상위 지배회사	현대중공업(주)	지분율 91.13% 보유
조인트벤처	현대코스모(주)	조인트벤처(50%)
관계회사	현대자원개발(주)	지분율 15% 보유

(2) 특수관계자와의 중요한 거래내역

단위: 천 원

회사명	2012. 12. 31		2011. 12. 31	
	매출 등	매입 등	매출 등	매입 등
지배회사	4,093,840	73,627,879	1,582,001	54,817,857
지분법피투자회사	-	-	6,115	-
조인트벤처	2,028,205,441	1,287,382,469	1,869,171,077	1,133,008,124
기타특수관계자(지배회사의 종속회사 등)	826,146,834	75,097,050	777,726,725	85,334,442
합계	**2,858,446,115**	**1,436,107,398**	**2,648,485,918**	**1,273,160,423**

(3)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 · 채무 내역

단위: 천 원

회사명	2012. 12. 31		2011. 12. 31	
	매출채권 등	매입채무 등	매출채권 등	매입채무 등
지배회사	2,588,275	100,010	295,442	12,535
지분법피투자회사	-	-	-	-
조인트벤처	173,919,104	125,360,907	167,986,931	96,944,892
기타특수관계자(지배회사의 종속회사 등)	46,450,163	4,658,892	50,209,911	5,582,781
합계	**222,957,542**	**130,119,809**	**218,492,284**	**102,540,208**

(4) 주요경영진에 대한 보상

단위: 천 원

구분	2012. 12. 31	2011. 12. 31
임금(단기급여)	772,592	613,700
퇴직급여	261,555	114,376
합계	**1,034,147**	**728,076**

상기의 주요경영진에는 회사 활동의 계획 · 운영 · 통제에 대한 중요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이사 및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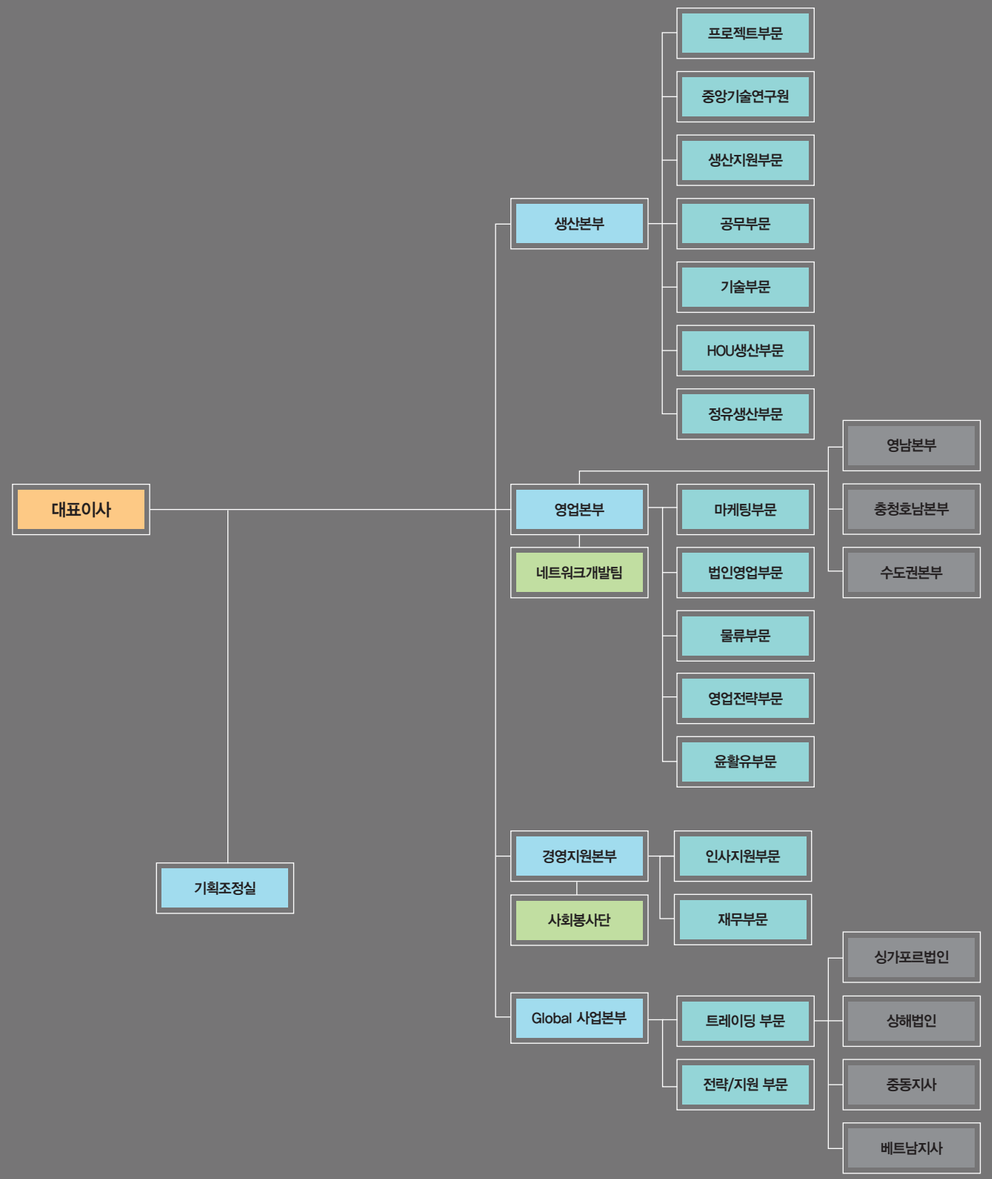
31. 비지배지분과의 거래

(1) 지배력의 상실이 없는 종속기업 지분의 처분

단위: 천 원

구분	2012년
처분한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	22,593,028
처분대가	33,000,000
지배지분의 자본에 인식된 처분차액	10,406,972

전사조직도



주요 연혁

2012

2012. 12 무역협회 주최 무역의 날 80억불 수출탑 수상
2012. 12 권오갑 사장 무역의 날 은탑 산업훈장 수상
2012. 11 제2 BTX 기계적 준공
2012. 11 KS-CQI 全산업 1위, KS-SQI 정유부문 1위
2012. 10 제1회 대한민국지식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2. 09 최첨단 열공급 설비(FBC) 준공
2012. 07 권오갑 사장 한국경제신문 다산경영상 수상
2012. 04 협력업체 전용 한마음관 준공
2012. 04 현대쉘베이스오일 출범
2012. 02 현대오일뱅크 1%나눔재단 출범
2012. 02 쉘(Shell)과 윤활기유사업 합작

2011

2011. 11 판교 중앙기술연구원 건립
2011. 10 울산신항 유류저장시설 착공
2011. 09 대기업 최초 1%나눔 협약
2011. 09 제2 고도화 시설 준공
2011. 07 제2 BTX공장 기공
2011. 03 지역 저명인사 고객 자문단 출범
2011. 01 제2 고도화 설비 완공

2010

2010. 08 권오갑 사장 취임
2010. 08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편입
2010. 07 2010년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 KSQI 정유사 콜센터 부문 1위
2010. 06 2010년도 한경매거진 주최 일하기 좋은 기업 대상 수상

2000s

2009. 12 무역협회 주최 무역의 날 50억불 수출탑 수상
2009. 07 2009년도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주최 KSQI 정유사 콜센터 부문 1위
2009. 06 현대오일-日코스모 석유 파라자일렌 등
연 91만 톤 규모 BTX 공장 건설 합의
2009. 03 2009년도 제7회 한국윤리경영대상 종합대상 수상
2008. 12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15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2008. 11 대산 공장 '제2 고도화 프로젝트 플랜트건설 용역 계약' 체결
2008. 04 현대오일뱅크-日코스모 석유 정유사업 전반에 걸친
전략적 제휴 협약 체결
2007. 06 기업어음 신용등급 $A2^+$ 평가
2007. 03 5만 2,000 배럴 규모 제주저유소 가동
2007.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A등급 평가
2006. 03 산업자원부 선정 민간기업 제조업부문 최우수 윤리경영기업
2005. 11 청정연료사업(Clean Fuel Project) 완공
2004. 11 「신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노동부)
2002. 04 「현대정유 주식회사」를 「현대오일뱅크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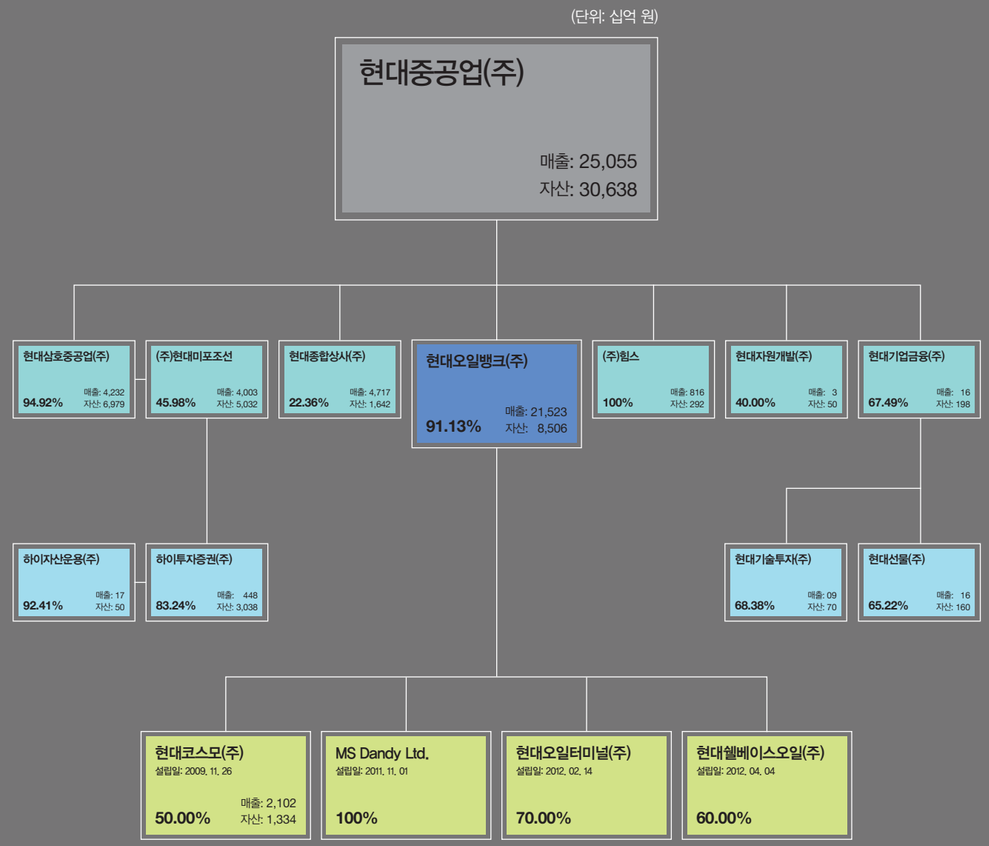
1960s ~ 1990s

1999. 12 한화에너지 인수 및 한화에너지프라자(주) 합병
1998. 05 연산 40만 톤 BTX 시설 준공
1996. 05 대산공장 20만 배럴 원유정제시설 준공
1994. 06 OILBANK 브랜드 개발 도입
1993. 07 「극동정유주식회사」를 「현대정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89. 11 원유처리 일산 10만 배럴 증설허가 취득
1989. 07 대산공장 준공(대통령 표창 수상)
1988. 11 「극동석유주식회사」를 「극동정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88. 08 일산 6만 배럴 상압증류시설 가동 개시
1978. 08 원유처리 일산 1만 배럴 시설 준공
1977. 05 「극동쉘석유주식회사」를 「극동석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69. 01 「극동석유공업주식회사」를 「극동쉘석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1964. 11 최초 민자 정유회사(극동석유공업(주)) (現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설립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 현황

현대오일뱅크는 글로벌 종합중공업회사인 현대중공업의 가족으로서 미래 신성장 동력 개발을 위해 기존 원유 정제에 치우쳤던 사업구조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현대오일뱅크 임직원 모두는 국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최고의 종합 에너지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단위: 십억 원)



* 매출 및 자산은 2012년 12월 말 기준임
* 현대오일뱅크 매출 및 자산은 K-IFRS 별도 기준임
* 현대선물, 하이투자증권, 하이자산운용은 2012년 3월 말 결산 기준임

Global Network



Overseas

싱가포르법인
Hyundai Oil Singapore Pte. Ltd.
7 Temasek Boulevard #29-01, Suntec Tower, Singapore 038987
Tel : +65-6332-1400

상해법인
Hyundai Oilbank Shanghai Representative Office
Hyundai Oilbank (Shanghai) Co., Ltd.
Room 2305, North Tower, #528, South Pudong Road Shanghai 200120, CHINA
Tel : +86-21-6881-505

두바이지사
Hyundai Oilbank Middle East Branch
2902 Indigo Icon Bldg. JLT, Dubai, UAE
(P.O. BOX 25321)
Tel : +971-4-454-8708

베트남지사
Hyundai Oilbank Vietnam Office
Suite 1908 Keangnam Landmark Tower, Plot E6, Cau Giay Urban Area, Me tri Commune, Tu Liem District, Hanoi, Vietnam
Tel : +84-4-6252-5511

Domestic

본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대죽리 640-6	Tel : 041-660-5114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9, 20, 21층	Tel : 02-2004-3000
서울지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연세빌딩 20층	Tel : 02-2004-3874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486-11,12 네오타워빌딩 15층	Tel : 031-837-9155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38-2번지 세영빌딩 16층	Tel : 031-221-5189
인천지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27 한국씨티은행빌딩 15층	Tel : 032-566-5188
영동지사	강원도 강릉시 옥천동 159번지 현대자동차(주) 강릉사옥 3층	Tel : 033-655-6531
영서지사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 1720-2 301호	Tel : 033-744-4585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1298번지, 현대해상빌딩 5층	Tel : 042-480-2128
충남지사	충남 서산시 동문동 985-1 대신증권빌딩 4층	Tel : 041-664-8533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430 BYC빌딩 6층	Tel : 043-276-4367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20 현대해상화재빌딩 8층	Tel : 062-602-5145
전남지사	전남 순천시 연향동 1326-1 순천LG빌딩 7층	Tel : 061-725-5871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2가 1573-1 사학연금빌딩 13층	Tel : 063-242-5151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2동 891-2 부산현대OB	Tel : 051-590-5117
울산지사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5-7 대우증권사옥 4층	Tel : 052-227-9180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104-2 대한지적공사 울산경상남도본부 1층 2호	Tel : 055-289-6722
대구지사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111번지 영남타워빌딩 16층	Tel : 053-603-6665
경북지사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135-19 주식회사 케이티 포항사옥 5층	Tel : 054-281-8181
제주지사	제주시 연동 291-44 현대자동차(주) 제주사옥 5층	Tel : 064-712-5189
중앙기술연구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3 솔리드 스페이스 빌딩 6층	Tel : 02-6270-8610

Contact Information
경영분석팀 Tel : 02-2004-3677
조득신 팀장(상무), 반제형 부장, 김아영 사원

